

— 18  29 —
DELVAUX



델보 현대 압구정 본점
02 3449 5916

델보 갤러리아 EAST
02 6905 3709

델보 현대 무역센터점
02 3467 8346

FROM THE KINGDOM OF BELGIUM

조선일보
Style
JANUARY 2017
vol.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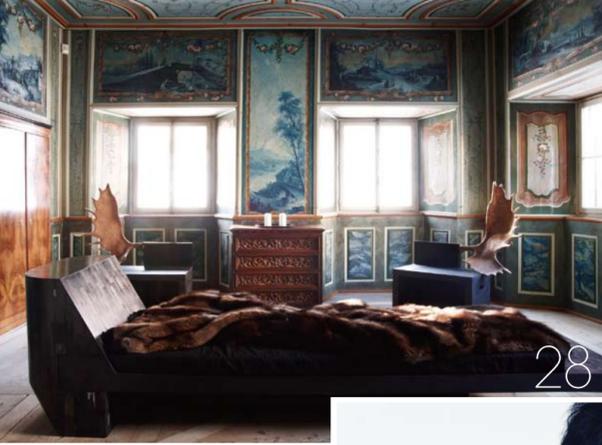
Cartier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Perlee bracelets
yellow gold,
white gold and diamonds.



28



32



표지에 등장한 제품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중한 자신에게 채워주고 싶은 꿈의 상징인 카르띠에 러브 브로이슬릿이다. 세계 최고의 주얼리인 카르띠에가 변하지 않는 고귀한 아름다움으로 완성한 러브 컬렉션은 탄생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적인 주얼리로서의 자리를 잡았다. 문의 1566-7277



14

08



- 10 **'나 홀로' 문화는 왜 의미 있는 화두인가** '혼밥', '혼술', '혼커', '솔로 여행족', '1인 창업자' 등 혼자 놀고 쉬고 일하기를 선호하는 '나 홀로족'이 눈에 많이 띈다. 벗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솔로'를 고집하는 것이다. 고독력(孤獨力) 예찬론자들의 흥미로운 얘기를 들어보자.
- 12 **TIME IN ART** 지름 40mm 안팎의 작은 원형 다이얼 위에 펼쳐진 경이로운 시계 예술의 세계.
- 14 **WITH A LIGHT HEART** 겨울의 한가운데. 하지만 새로운 출발과 함께 봄바람을 상상하며 살리기 시작한다. 겨울 속 패션 파라다이스, 빅 하우스들의 크루즈 룩으로 미리 즐기는 가벼운 스타일.
- 22 **TIMELESS ELEGANCE**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2층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위치 브랜드인 블랑팡의 부티크가 오픈한다. 브랜드의 기원과 문화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기에 더욱 의미 깊다.
- 23 **IDEAL SCENE** 세계적인 아이웨어 그룹 룩스타카에서 선보이는 선글라스 컬렉션을 소개해보자. 이번 시즌 선글라스 트렌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테니.
- 24 **THE ART OF TAILORING** 좋은 수트와 진정한 남성 패션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브랜드, 휴고 보스(HUGO BOSS)가 완벽한 핏을 이는 남성들을 위해 폴 캔버스 수트를 소개한다.
- 26 **HIGHLY DECORATED** 벨벳과 자카드 등 독특한 소재, 빈티지한 컬러와 장식이 호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 27 **FIRMING RITUAL** 고귀한 캐비어, 최고급을 추구하는 라프레리, 그리고 완벽한 아이 케어. 이 모든 요소를 충족시키는 라프레리의 아이 케어 에센스, '에센스 오브 스킨 캐비어' 아이 크림을 소개한다.
- 28 **OWENS-ESQUE ART FURNITURE** 지난 12월 중순, 일사적 정신 집행을 앞둔 미국의 스타 뮤지션 키에이 웨스트가 공식 행사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곳은 LA 현대미술관(MoCA), 패션계 슈퍼 디자이너 리크 오웬스의 가구전 (Rick Owens: Furniture) 전시 장소였다. 2007년, 취미로 만들던 가구를 세상에 선보였다가 아트 퍼니처 세계에서 열렬한 지지를 받게 된 리크 오웬스를 서울 도산 공원에서 만났다.
- 29 **BLACK TEA REMEDIES** 주름 개선 기능성 인증을 받은, 피부 탄력에 중점을 둔 새로운 제품이 탄생했다. 바로 프랑스의 '블랙티 퍼밍 코르셋 크림'. 오랜 연구 끝에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성분들을 화장품에 담았기에 더욱 매력적이다.
- 30 **BLUE THERAPY** 피부 장수를 꿈꾸며 오랜 시간 젊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모든 여성을 위한 현명하고 능동적인 선택, 샤넬 '블루 세럼'.
- 32 **STRENGTH & STRETCH** 2017년 달라진 보디라인과 건강을 위해 (스타일 조션일보) 에디터가 직접 방문한 필라테스 센터 세곳 리얼 체험기.
- 33 **TRENDY SWEETS** 당신의 오감을 만족시킬 프리미엄 디저트 스펀넷.
- 34 **EDITOR'S PICK** 새해를 맞아 (스타일 조션일보) 에디터들의 화장대에 새롭게 놓인 뷰티 신제품을 소개한다.

Style 조선일보 **Issue.151** January 2017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에디터 | 권유진 yjkwon@chosun.com
 에디터 | 이지연 easyear@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어시스턴트 | 김수민 권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박승현 shpark@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 - 제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사당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션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를,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션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리서치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션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MONTBLANC

Pioneering since 1906.
For the pioneer in you.

1906년부터 이어온 개척 정신,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대항해 시대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몽블랑 4810 크로노그래프 오토매틱은
탐험하듯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스위스 파인 워치 메이킹의
정확성과 정제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montblanc.com/pioneering
Crafted for New Heights.





Jewel MEANINGFUL MELODY

저마다 신비로운 비밀을 간직한, 형형색색의 컬러 스톤 주얼리 컬렉션.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사랑을 의미하는 루블라이트 스톤이 돋보이는 무사 컬렉션 이어링 1천4백만원대 **블라지**. 진실을 의미하는 핑크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하트 모티브 펜던트 3백만원대 **타피니**. 행운의 메시지를 품은 말라카이트 등 다양한 유색석으로 장식한 불가리 불가리 브레이슬릿 4백만원대 **블라지**. 진실을 상징하는 9월의 탄생석인 불루 사파이어로 이루어진 T 스톤 미니 펜던트 2백30만원대 **타피니**. 2월의 탄생석인, 평화를 의미하는 루미노 자수정 네크리스 2백10만원대, 8월의 탄생석으로 행복의 의미를 지닌 루미노 페리도트 네크리스 4백10만원대 모두 **타피니**. 기쁨을 뜻하는 옐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꽃 모티브의 옐로 데이지 키 펜던트 8백70만원대 **타피니**. 에디터 **배미진**, **이지연**



백에 맞아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좋은 1월, 신년을 맞아 나에게, 또는 자선들에게 선물하기 좋은 럭셔리 스타일라이프 아이템을 담았다. 산토스 까르띠에의 탁상시계 바진 2백80만원대 **까르띠에**. 소가죽 펜슬 케이스 2998천원 **한티 베글린**. 말 모양 문진 70만원대 **에르 메스**. 스물 주얼리 박스 26만원대, 가죽 필통 28만원 모두 **스미아**. 안드레 울마를 연상시키는 가죽 연필꽂이 63만원대 **한티 베글린**. 노트 위에 쓰인 글씨를 스티크폰으로 전송할 수 있는 어그먼트드 페이퍼 세트 85만원 **몽블랑**. 악악자족 다이나미 가격 미정 **콜롬보 비아 델 라스카**. 페르노 노트 10만원대 **에르메스**. 자동차 모티브의 스트랩라인 R 인본과 콜라. 1백25만원대 **S.T 듀폰 파피**. 에디터 **이지연**



Hot Spot
프리미엄 패딩의 또 하나의 메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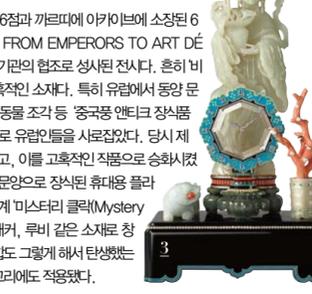
프리미엄 패딩 전성시대라 불리는 지금, 또 하나의 패딩 브랜드가 한국을 찾았다. 바로 이미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는, 보온성과 방수력, 디자인, 소재 등 어느 것 하나 흠잡을 것 없이 완벽한 이탈리아 프리미엄 패딩 브랜드 에르노(Herno)다. 일명 '창담 패딩'이라 불리며 해외 현지, 혹은 친구 사이트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었던 에르노는 이미 몇 해 전부터 럭셔리 패딩의 대명사 몽클레르, 이제는 국민 잠퍼 아이템이 된 캐나다구스와 나란히 프리미엄 패딩 자리를 지켜온 브랜드다. 본래 패딩은 패션성보다는 혹한을 막는 보온의 기능성으로 선택되는 아우터이기에, 날선한 라인을 살리기보다는, 특유의 울퉁불퉁한 형태로 디자인을 포기했어야만 했다. 하지만 에르노는 70여 년의 전통과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따뜻하면서도 알고 가벼운 고품질의 다운 제품을 살려내,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 많은 패딩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2월 1일 창담동에 오픈한 에르노 플래그십 스토어는 에르노 본사가 위치한 이탈리아 레시(Les) 지역의 자연환경을 표현하기 위해 자연 친화적 콘셉트로 꾸렸다. 매장 내벽은 슬레이트(slate)와 플라넬(flannel) 같은 천연 소재를 사용했고, 매장의 가운데 벽은 다양한 식물을 활용해 마치 정원같은 느낌을 준 것. 입구를 통해 매장으로 들어오면 수직으로 물이 흐르는 장치가 외부에 설치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브랜드 내일이기도 한 에르노 강을 의미한다고. 창담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는 이번 시즌 새로운 소재를 융합한, 방풍과 방수 기능에 특화된 라미너(Laminar) 컬렉션과 함께 그래픽 디자인이 피에르 루이 마시(Pierre-Louis Mascia)와 협업해 출시한 캡슐 컬렉션을 판매 중이다. 문의 02-541-7235 에디터 **이지연**

INSIGHT

편잡부가 아닌,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Focus
파리를 고혹적으로 물들이고 있는 <제이드, 황제에서 아르데코까지>展

울거울 파리를 방문할 예정이라면 화소7치 있는 전사를 주목할 만하다. 옥(jade)을 주제로 한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컬렉션을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펼쳐지고 있어사다. 파리에 위치한 기네 국립 중앙 박물관(www.guimet.fr/en)에서는 오는 1월 16일까지 엄선한 옥으로 만든 까르띠에 컬렉션 26점과 까르띠에 아카이브에 소장된 6점의 드로잉 작품을 비롯해 진귀한 옥 컬렉션을 만날 수 있는 <제이드, 황제에서 아르데코까지(JADE, FROM EMPERORS TO ART DÉCO)>전이 열린다. 타이베이 국립 고궁 박물관, 파리 몽테넬로 공전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등 세계 여러 기관의 협조로 성사된 전사다. 흔히 '비취로 통하는 경옥과 연옥으로 나누는 제이드는 미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신화와 전설에서 많이 다른 매력적인 소재다. 특히 유럽에서 중앙 문화가 인기를 끈 19세기 와 아르데코 양식이 성행한 20세기 초에 중국과 일본에서 건너온 명파, 플라스크, 동물 조각 등 '중국풍 연타리 장식품(apprêts)'이라 불리는 오브제들은 기발한 장식 요소만이 아니라 제이드를 비롯한 다양한 소재의 매력으로 유럽인들을 사로잡았다. 당시 제이드에 매료된 까르띠에는 아시아의 이국적인 보물을 활용해 중국의 상징주의에 바탕을 둔 형태를 탐구했고, 이를 고혹적인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프랑스식으로 모방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에 내재된 고유의 미를 재해석한 성과물이었다. 정교한 문양으로 장식된 휴대용 플라스크, 용을 모티브로 삼은 브로치, 제이드, 오프스, 자개 등 보석을 활용해 사대의 미학까지 보여주는 시계 '미스터리 클락(Mystery Clocks)' 시리즈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렇듯 제이드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까르띠에에는 산호, 레드 라커, 루비 같은 소재로 창조 영역을 더 확장해나갔다. 강렬한 녹색을 띠는 최상급 비취 구슬과 루비, 다이아몬드의 빼어난 색채 조합도 그렇게 해서 탄생했는데, 이는 안경을 주제로 한 시계-브로치, 붉은색 라커로 채색한 '장수'를 뜻하는 긴자체 'shou'를 새긴 귀고리에도 적용했다.



1전시회 도록 표지, 에디션 다르 소모지(Éditions d'Art Somogy) 출판사 발행. 2실 시계-브로치 (Seal Watch-brooch), 까르띠에 파리(1929), Nick Welsh, Cartier Collection © Cartier 3신 모티브의 미스터리 클락(Mystery Clock with Deity), 까르띠에 파리(1931), Marian Gérard, Cartier Collection © Cartier



Exhibition
<DAVID LACHAPPELLE : INSCAPE OF BEAUTY>+ <길>展

강한 색채와 극사실적 미감, 그리고 진진한 풍경이 지나가는 애절한 아름다움, 사진 애호가라면 이렇듯 각기 다른 매력을 풍기는 가정의 전사를 눈여겨볼 만하였다. 먼저 서울 윗동대 아람뮤지엄(www.aramuseum.org)에서 개최되고 있는 <DAVID LACHAPPELLE : INSCAPE OF BEAUTY>는 5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은 미국의 팝 아티스트이자 패션 사진가 데이비드 라펠의 전사다. 종교와 양자 세계, 색수열리듬을 둘러싼 사회규범, 개인의 숭배와 물질에 대한 탐구 등과 연관된 심오한 사회적 메시지, 강렬한 극사실적 미감을 특징으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한 라펠의 초기 작품인 1980년대 작품부터 지난 10년간 대표작을 아우르는 1백80여 점을 선보이고 있다. 전사는 오는 2월 26일까지 계속된다. 풍경 사진의 대가로 한국에서도 이미 유명한 마이클 케나(Michael Kenna)의 전사 <길(The Roads)>은 또 다른 감성을 선사할 듯하다. 강원도 삼척의 한 섬을 촬영해 사진집 <The Roads>의 한 장을 소개하는 데 기여하고, 지금까지 '출생으로 바꾸면서 평생 영소로 거듭나게 한 일화'로 유명한 영국 출신의 가장, 2백 점이 넘는 케나의 작품을 수집해오고 있는 일터 존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많은 팬을 거느린 작가다. 이번 전사는 2011년 <출생자의 나무>, 2012년 <고요한 아침>, 2014년 <동방으로의 여행>전에 이어 네 번째로 열리는 국내 개인전으로, 세계 곳곳에서 길을 소재로 한 사진을 접할 기회다. 1984년 영국에서 촬영한 작품 'Beach Path'부터 최근작인 이탈리아 배경의 'Abruzzo' 시리즈(2016)에 이르기까지 50여 점의 작품이 포함돼 있다. 서울 삼성동 공근갤러리(www.gallerykong.com)에서 오는 2월 19일까지. 에디터 **고성연**



DECORTÉ



‘나 홀로’ 문화는 왜 의미있는 화두인 걸까

‘혼밥’, ‘혼술’, ‘혼커’, ‘솔로 여행족’, ‘1인 창업자’ 등 혼자 놀고 쉬고 일하기를 선호하는 ‘나 홀로족’이 눈에 많이 띈다. 벗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솔로’를 고집하는 것이다. 거미줄같이 얽혀 있는 사회 관계망 속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언제나 ‘접속’ 상태인 디지털 생활 방식에 시달리는 인간이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고 가장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 ‘홀로움’의 미학을 추구하는 건 생존 본능이자 지혜의 발현으로 보인다. 이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신학자 폴 틸리히는 혼자 있는 고통을 ‘외로움(loneliness)’으로, 혼자 있는 즐거움을 ‘고독(solitude)’으로 구분하기도 했다. 고독력(孤獨力) 전문가들의 흥미로운 얘기를 들어보자.

17세기를 살다 간 영국의 시인이자 신학자 존 던은 ‘어떤 인간도 섬은 아니다(No man is an island)’라는 명문을 남겼다. 누군가와의 연결 고리 없이 홀로 존속할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속성을 말해주는 표현으로 애용되는 문구다. 사회적 역할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어서일까. 인간은 ‘외로움-유전자’를 갖고 태어난다는 주장이 있다. 인류의 뇌가 상대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소통의 기술이 발달한 것도 이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것.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부유하거나 많은 걸 성취한 이들이 아니라 평생 친하게 지내는 친구를 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유형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외로움은 질병을 초래한다’는 논리를 뒷받침하기도 했다. 하지만 반드시 ‘홀로 있음=외로움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식과 경험으로 알고 있다. 인간이란 ‘사람’으로 위로받지만 ‘사람’에 시달리고 지쳐가는 역설의 존재 아닌가. 그런 이유에서 도시화와 고령화 현상, 노동 환경의 변화, 대면이 필요 없는 사이버 환경 때문에 인류의 ‘군중 속 외로움’은 갈수록 짙어진다든 목소리도 불거지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은 때때로 섬이 되어야만 한다’는 ‘홀로움의 미학’을 주장하고, 또 실천하는(혼자 잘 있는 능력도 키워야 한다) 이들의 모습이 눈에 많이 띈다. 아마도 그 주된 이유는 복잡다단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휘둘러지는 우리는 혼자가 됐을 때야 비로소 ‘본래의 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임경선 작가는 혼자만의 시간은 ‘타인과 나를 위한 배려의 시간’이라고 했다. 자아를 성찰해야만 마음속 정직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타인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그들을 포용할 힘도 생긴다는 것이다. 더구나 디지털 기기로 둘러싸인 ‘스마트 세상’에서는 오히려 혼자가 될 시간을 갖기 어렵지 않은가. 온종일 ‘연결돼 있는’(connected) 터라 소통의 탓에 차이가 심상이고, 인간관계망에서 홀출 벗어나기도 힘들다(‘접속된 상태’인데도 외려 더 외로워진다고 호소하는 이들도 많다). 요즘 일하든 취미 생활이든 여가든 혼자 하기를 선택하는 ‘나 홀로족’이 증가하는 현상은 단지 주변에 얽매지 않고 자기 취향대로 즐기자 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무엇도, ‘접속’ 인간도 아닌, 그저 순수한 ‘나 자신’으로 있는 시간을 늘려 본질을 잃지 않으려는 일종의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르겠다.

여럿이서 할 수 있어도 굳이 혼자 먹고 마신다

지금으로부터 7~8년 전쯤 됐을까. 뉴욕에서 공부하고 런던으로 건너와 일하던 한 제품 디자이너가 이런 말을 했다. 자신이 처음 이주했을 당시에는 무척 힘들었지만, 점차 익숙해지자 제일 좋게 느낀 점을 꼽자면 회사 일을 마치면 혼자 펍(pub)에 가서 맥주 한잔을 하고 귀가하는 루틴이라고. 뉴욕만 해도 혼자 바 같은 곳에 가면 다소 외톨이처럼 느껴졌지만, 런

던에서는 홀로 조용히 맥주잔을 비우고 각자 갈 길을 가는 모습이 꽤 흔한지라 남의 눈치 볼 일이 없어 편했다는 얘기였다. 바쁜 일상에 지친 나머지 역동적인 ‘볼금’ 활동을 추구하기보다는 일찍 귀가해 혼자만의 식도락과 엔터테인먼트를 택하는 싱글족이 많아졌다고는 해도, 외식을 홀로 즐긴다는 건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는 좀처럼 상상하기 힘든 문화라고 생각했지만 웬걸, 세상은 그새 달라졌다. 얼마 전 tvN에서 인기를 끈 월화극 《혼술남녀》에서도 다뤘지만, 요즘 외식 트렌드 중 하나는 혼자 밥 먹는 ‘혼밥’, 혼자 커피 마시는 ‘혼커’, 혼자 술 마시는 ‘혼술’ 같은 ‘나 홀로 식음(食飲)’이다. 물론 정말로 원하는 타이밍에 지인이나 벗을 대동하기 힘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애써 동행인을 찾지 않고 일부러 ‘솔로(solo)’를 택하는 행태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 ‘혼술혼밥족’은 말한다. 규칙이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온전히 ‘주인’으로 행세할 수 있기 때문에 홀로 먹고 마시기를 선호한다고. 예컨대 천천히 먹든 빨리 먹든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생선 요리에는 화이트 와인, 육류에는 레드 와인을 곁들이는 식으로 통상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온전히 내 감각, 내 취향이 흘러가는 대로 즐기면 된다. 누군가의 장단을 맞춰줄 필요 없이 자신만의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편안함도 이점이다. 혼술족의 경우는 자주 가는 술집에서 마주치는 주인장이나 단골손님들과 일종의 느슨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기도 하므로, 문득 대화가 그리워지면 어렵지 않게 말 상대를 찾을 수 있다. ‘홀로움’을 즐긴다는 전제가 있기에 서로 배려하는지라, 너무 친밀하지도 낯설지도 않은 부담 없는 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솔로 여행족의 증가와 ‘한 달 살기’ 열풍

특급 호텔 브랜드 포시즌스에서 나온 여행 잡지에 따르면, 요즘 미국에서는 성인 남녀의 11%가 혼자 휴가 여행을 떠난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 중 대다수가 배우자나 연인, 친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솔로 여행을 즐긴다. 특히 여성 여행자들 사이에서는 ‘나 홀로 여행(solo travel)’이 이미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굳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각종 여행 잡지에서는 솔로족을 위한 ‘최상의 후보지’ 목록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자아 찾기를 위한 명상이 좋은 곳,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기에 적합한 곳,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 쉬운 곳 등 취향별로 분류한 상품 패키지를 내놓으면서 말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인터넷 카페에서는 혼자 떠나는 이들을 대상으로 같은 여행지에서는 동행하지는 제인이 쏟아진다. 물론 원할 때는 같이 다니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각자 다니는, 따로 또 같이 패턴을 취한다. 뚜렷한 취미 활동을 목적으로 떠나는 이들의 경우에는 앞서서 ‘그룹핑(grouping)’이 된다. 최근 발리로 서핑 여행을 떠난 프리랜스 기고가 M양. 혼자 심심할 텐데 후시 데피렉을 마련해줬다고 문자 이

런 답이 돌아왔다. “제게 필요한 건 여권과 수영복뿐이에요. 세계 각지에서 나 홀로 서퍼들이 워낙 많아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거든요.” 럭셔리 맞춤 여행을 주선하는 해외여행사에서 ‘벗’도 되고 ‘선생님’도 되는 전전후 가이드를 키운다. 이들의 직업은 전문 가이드가 아닌 경우도 상당하다. 건축가, 아티스트, 와인 전문가 등 ‘취향’과 문화 수준이 여행자와 비슷하거나 높은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다. 젊은 층 사이에서는 아예 어디론가 홀로 떠나 단기 체류를 하는 ‘한 달 살기’ 열풍도 불고 있다. 일주일 남짓한 여행으로는 제대로 된 ‘혼자 놀기가 쉽지 않으므로 국내든 해외든 원하는 곳에서 적어도 한 달 동안 충분히 고독을 즐기는 것이다. 직장을 그만두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틈에 하는 경우도 있고, 휴학생이나 졸업생 중 청춘의 방향을 핑계 삼아 한 달 살기를 실천하는 경우도 있다(이러서의 공백기가 너무 길어질까 봐 한 달 이상은 업무를 내기 힘들다는 측면도 있다). 체류비가 부족할 때는 숙식을 해결해주는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거나 카페, 레스토랑에서 일하면서 용돈을 벌기도 한다. 제주도에 가면 이처럼 ‘알바를 하면서 한 달 살기’족으로 지내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렇듯 낯선 곳에서 혼자 지내는 여행이나 체류의 장점은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어 창조력이 증대된다는 점을 꼽는다. 익숙지 않은 환경에서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하면 ‘안전지대(comfort zone)’를 벗어나게 되므로 일종의 ‘각성’을 하기도 하고, 친절한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신한 발상을 꽃피울 수도 있다는 논리다. ‘자아 찾기가 아주 잘 진행된 경우에는 심지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 정신적으로 새롭게 발돋움’을 겪게 되기도 한다고 여행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프리 에이전트’ 되기는 1백 세 시대의 필수 요건일까

혼자 일하는 걸 유달리 선호하는 부류는 분명히 따로 있다. 때때로 그 속박 없는 고요함이 중압감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시 선택하려면 ‘홀로서기’를 고수할 유형이다.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가 말했듯이 20세기형 ‘조직 인간’이 아니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 삶을 통제하는 ‘프리 에이전트’도 여기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런 방식이 커리어 이모작, 삼모작을 요구하는 고령화 사회에서는 다수에게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 은퇴 연령이 낮아지고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의 발달로 로봇이 노동 인력을 대체하는 현실, 더구나 인력 이동의 장벽이 낮아지면서 자신보다 역량이 뛰어난데도 더 적은 임금을 감수하겠다는 이들과도 경쟁해야 하는 세상이다. 그런데 생존을 위해서든, 무위고를 달리기 위해서든 ‘평생 현역’을 꿈꾸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으니, 일생에 한 번쯤은 1인 기업가형 일꾼으로 살아야 하는 시대가 온 건지도 모른다. 이 같은 노동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비해 파트너십

으로 미리 ‘독립 연습’을 하는 직장인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카페 혹은 식당 등을 운영하거나 바쁜 시간을 쪼개 지식, 기술을 습득하는 경우는 이미 흔하다. 모 유명 번역 에이전시의 번역자 프로필을 보면 ‘자아 실현을 목표로 삼은 경력이 단절된 주부’도 있지만, 밀정만 작장이 있는데도 번역 일을 하는 사례가 많다. 중소기업 입원, 증권사에널리스트, 엔지니어 등 그 면면도 다양하다. 연금이 보장된 공무원도 더러 있다. 은퇴 후 여생이 길게 펼쳐질 테니 상대적으로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지식 노동을 하면서 심심하지 않게 늙어가고 싶다는 이유를 든다. 유가병 똥 만들기, 영어 토론 동아리 같은 온라인 동호회를 저러 모임 같은 오프라인 활동으로 확대하면서 투잡을 뛰는 커뮤니티 기반의 1인 창업가도 부쩍 늘어나고 있다. 그러다 보면 아예 직장을 나와 ‘자립하는 수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1인 디지털 마케팅 사업에 뛰어든 김재명 대표는 “특정 업무만 수행하는 ‘휴먼 클라우드’ 방식이 도입되는 21세기에겐 어차피 고용 패턴이 바뀔 수밖에 없다”면서 “실재하더라도 현재의 경험이 값진 자산이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한다. 출판사 편집자 출신으로 최근 카페를 차리고 별도로 1인 출판 기획도 하는 조혜정 씨는 “1인 사업자가 다양한 분야의 일꾼들과 협업을 펼칠 기회가 의외로 많고, 디지털 네트워크 덕분에 물리적으로 매여 있어도 얼마든지 일을 추진할 수 있어 고무적”이라고 강조한다. 커리어 중간중간에 자신에게 집중하는 심도 있는 재충전 기회를 정기적으로 갖는 ‘편종형’ 곡선을 타는 유형도 있다. 70대가 되어서도 사회에 생산적인 공헌을 하고 싶다면 과거처럼 서서히 올라가다가 은퇴와 동시에 절벽처럼 가파르게 미끄러지지 않고, 여러 개의 줄을 늘어놓은 것 같은 노선을 걸어야 한다는 뜻에서 붙은 명칭이다. 20대에 열심히 한 우물을 파다가 30대가 되면 1년 동안 일을 쉬면서 여행을 다니거나 자원봉사를 한 다음 직장으로 돌아오고, 40대에 다시 한 번 다른 전문 역량을 쌓는 식으로 ‘강수 커리어’를 위한 로드맵을 짜는 이들도 있다. 공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우버 기사, 음식 배달원 등 일회성 계약으로, 그것도 시간 단위로 일하는 이른바 ‘긱(gig, 1920년대 재즈 연주자를 단기간 섭외해 공연한 데서 유래됨)’ 유형의 근로자가 많아지는 현상도 주목할 만하다. (라이프트렌드 2017)을 참조하자면 우버(Uber)의 기사 숫자가 이미 1백50만 명에 이르고,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오는 2025년 계절 긱 이코노미가 2조7천억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했다. 조직에 종속되지 않는 삶을 원해서든 퇴직 뒤 귀 여생을 생산적으로 보낼 장기 전략에서든, 혼자 일하는 자유로움을 택했다면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독자 노선에 따른 외로움과 중압감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스스로를 다잡을 수 있는 통제력을 필수적으로 갖춰야만 홀로움의 미학이 빛을 발한다고 많은 ‘나 홀로족’은 이구동성으로 강조한다. **에디터 고영연**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반클레프 아펠 바티콜라이 심포니 신비로운 기운이 깃든 오크 나무 위를 노니는 아름다운 나비 한 쌍을 자개 다이얼 위에 섬세하게 새겨놓은 여성 워치, 금속 조각 장인인 올리비에 부세와 천재적인 무브먼트 콘셉터 장 마르크 비드레호트의 협업으로 완성한 마스터피스다. 이중 레트로그라이드 모듈을 적용해 왼쪽 나비가 시간을, 오른쪽 나비가 분을 알려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비가 나뭇가지 위에 숨기도, 나뭇가지도 하면서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가격 미정. 문의 00798-852-16123 **에르메스 아보 스텔 도라망** 에르메스의 상징적인 모티브인 7 피터에서 영감을 받아 중앙적인 무드의 알 한 쌍을 프랑스 전통 도장 기술로 다이얼에 새겼다. 목재에 도장을 입히는 기존 레커 방식이 아닌, 금속에 도장을 입힘으로써 에르메스의 뛰어난 메타에 디르 기술을 엿볼 수 있다. 인티어스 칼리버 H1837을 장착했고 전 세계 24점만 한정 제작한다. 7천원대. 문의 02-3015-3283 **카르띠에 콜레 드 카르띠에 스텔레온 오트메리 워치** 로마 숫자 형태의 스텔레온 브러시가 특징인 워치. 이는 카르띠에가 특허를 출원한 특별한 기술로, 이 로마숫자 브러시가 시와 분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다이얼의 앞뒤 모두에 사피어 글라스를 사용해 22K 골드 스텔레온 로타와 함께 1백65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 48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추었다. 6천8백원대. 문의 1566-7277 **볼카리 디비스 드림 투르비옹** 정교한 스텔레온 투르비옹 무브먼트에 16세기 마니에라 패인팅 기법으로 표현한 자연 모티브를 더해 무브먼트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승화시킨 여성 컴플리케이션 워치. 다이얼을 새겨놓은 세련된 둥근 케이스와 고대 카리칼라 유정의 모자이크 패턴 타일에서 영감을 받은 부채꼴 라그, 레드 옐로계 이터 가죽 스트랩의 조화가 화려하고 대담한 아름다움을 극대화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2066-0171 **부세론 이주레 임바라 산스크리트** 어로 무한한 공간이라는 뜻을 지닌 여성 주얼리 워치로, 유혹적이고 신비로운 벨이 무한대를 상징하는 숫자 8의 형태로 케이스를 감싸는 디자인이 유난히 돋보인다. 3백 개가 넘는 다이얼을 새겼으며, 화이트 마더오브펄 다이얼과 심비 색인 스트랩이 우아함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6천원대. 문의 070-7500-7282 **블랑팡 발레레 스텔레온 8 데이** 무브먼트 자체를 미학적인 관점으로 재해석해 총 1,277곳에 이르는 다이얼을 브러시, 크라운, 라그 등에 훌륭하게 새겼고,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경이로운 수준의 인그레이빙을 가미한 스텔레온 워치. 38mm 레드 골드 케이스 앞뒤의 사피어 크리스탈 케이스를 통해 이 신비로운 무브먼트의 아름다운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다. 8월간의 파워 리저브가 가능한 자체 무브먼트인 칼리버 1333SO를 탑재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310-5295 * 화보에 등장한 인물은 2016년 문화 예술 후원자 에디션인 페기 구겐하임 4810으로 3백28만 원 **통불량**, 에디터 권유진



time in Art

지름 40mm 안팎의 작은 원형 다이얼 위에 펼쳐진 경이로운 시계 예술의 세계.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Mercedes-Benz Club.

Blue, eau de toilette.



수입판매처 : (주)이오엔터테인먼트 | www.coobri.com | 080-3831-564

INCC - License of Daimler AG



Mercedes-Benz

WITH A LIGHT HEART

겨울의 한가운데. 하지만 새로운 출발과 함께
봄바람을 상상하며 설레기 시작한다.
겨울 속 패션 파라다이스, 빅 하우스들의
크루즈 룩으로 미리 즐기는 가벼운 설렘.
photographed by jang duk wha



은은하게 빛나는 골드 블루톤
재킷 8백59만원 **브루엘로 쿠차넬리**.
하트 플라워 패턴이 사랑스러운
플 스커트 가격 미정 **프라다**.
레드 컬러 레이다 디올 백 4백만원에
디올. 스와로브스키를 세팅한 후프
이어링 18만원 **타니 by 마네타니**.



그레이 재킷, 선명한 컬러의 플라워
패턴 스카프, 비즈 장식 디테일의
슬리브리스 프린트 드레스, 구조적인
플랫슈oes 돋보이는 블랙 페이퍼트
앵글부츠 모두 가격 미정 **디올**.
스와로브스키가 빛을 발하는 실버 드림
이어링 33만원 **타니 by 마네타니**.



리제임어 디테일이 매니쉬한 스타일을 연출해주는 일리트리 재킷 5백만원대, 러플 디테일을 가미한 화이트 셔츠 94만원, 성세한 플리워 패턴의 오감자 플리츠스카트 4백만원대, 벨가죽을 사용한 컷아웃 플랫을 부츠 2백60만원, 멀티컬러가 신뜻한 느낌을 주는 미니 스웨어 버클 백 가격 미정 모두 **바버리**, 골드 이어링 2508천원 **인크**.

우아한 핑크 컬러 트랜치코트 가격 미정 **보타가 베네다**, 안셀린스 카림이 유려한 멀티컬러 패턴 드레스, 니트 소재의 네크리스 모두 가격 미정 **미르니**, 사각형 장식을 더한 블루 컬러 펄프스 37만8천원 **슈콜라보나**, 네이비 컬러 레더 벨트 가격 미정 **마이클고어스 컬렉션**.



식물과 페이즐리 패턴으로 완성한
프린트가 고급스러운 블라우스, 채인
모티브 패턴의 안팔레스 컷 롱 드레스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금직한
말티콜라 스와로브스키 네크리스
89만원 **스외로브스키**, 버클 디테일을
가미한 샌들 힐 1백만원대 **프라다**.



커팅 포인트의 연보라색 톱,
블랙 브라 톱, 심플한 라인의
팬츠 모두 가격 미정 **셀빈느**.
물방울 형태의 실버와 블랙 컬러
장식을 레이어드한 금직한 이어링
가격 미정 **마이클코어스 컬렉션**.
신비로운 블루 컬러의 볼드링
33만원 **타니 by 마네타니**.





모던한 느낌의 컬러 블록 솔더백
2백50만원, 네이비 스타일아트 패턴
셔츠와 팬츠, 프레미 스타일의 니트
베스트, 셔츠와 함께 레이어드해
블라우스처럼 연출한 그린 도트 패턴
드레스 모두 가격 미정 **마이클코어스**
컬렉션, 레드 컬러 메리제인 슈즈
가격 미정 **보태가 베타타**, 진주 드롭
이어링 13만원 **스외로브스키**.

에스닉한 느낌을 지어내는
레드 컬러 패턴 롱 드레스
4백60만원 **팬디**, 레드 스트랩 힐
가격 미정 **쥬세베 자노티**,
드롭 형태의 진주 이어링
16만8천원 **엠주**.

모델 **곽자영**
헤어 **강원진**
메이크업 **안성희**
스타일리스트 **채환석**



더울 02-513-0300
타니 by 마네타니 02-3443-4164
셀린노 02-540-0486
마이클코어스 컬렉션 02-546-6090
보태가 베타타 02-515-5840
스외로브스키 1661-9060
팬디 02-2056-9022
쥬세베 자노티 02-543-1937
엠주 02-3446-3068
마르니 02-6905-3665
슈콤이브르니 02-511-1868
에르메스 02-544-7722
프라다 02-3442-1830
버버리 080-700-8800
잉크 070-8733-2237
브루셀로 쿠차셀리 02-3448-2931



timeless Elegance

기계식 위치를 사랑하는 시계 마니아들에게 희소식을 전한다. 바로 잠실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2층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위치 브랜드인 블랑팡의 부티크가 오픈한다는 것. 단순한 시계 부티크를 넘어 브랜드의 가치와 문화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기에 더욱 의미 깊다.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위치메이커, 블랑팡

하이엔드 기계식 위치의 불모지였던 국내 시계 시장에, 현존하는 시계 브랜드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하이엔드 위치메이커 블랑팡(Blancpain)은 꾸준한 스위스 시계의 가치를 알려온 유서 깊은 브랜드다. 장인들이 수공으로 생산하는 고유의 제작 방식을 고집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전통과 시계 예술의 가치를 환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에 시계 마니아들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듯 멋진 스토리를 지닌 블랑팡이 지난 12월 1일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2층에 위치한 하이 주얼리 & 위치 존에 국내 네 번째 단독 부티크를 오픈하며 새로운 행보를 알렸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세계적인 스위스 시계 브랜드가 모인 스위치 그룹을 대표하는 하이엔드 위치메이킹 브랜드이자, 에나멜링, 카루셀 같은 스위스의 기계식 시계 분야에서 거의 전통 예술에 가까워 구현하기 어려운 제작 노하우를 고스란히 이어오고 있는 의미 깊은 브랜드가 바로 블랑팡이기에 새로운 매장의 오픈은 국내 시계 시장이 성숙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블랑팡의 새로운 매장을 꼭 방문해야 하는 이유는 약 2백80년 전 블랑팡이 탄생한, 스위스 르 브라쉬(Le Brassus)에 위치한 블랑팡의 공방이 연상되도록 꾸며 브랜드의 역사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블랑팡의 공방은 창립자 예한-자크 블랑팡(Jehan-Jaques Blancpain)이 가족 농장 1층에 작업장을 개조한 형태였다. 이를 모티브로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월드타워점의 새로운 블랑팡 부티크 내부 곳곳에 위치한 원도 형태의 디스플레이 공간을 오래된 농장 지렛의 창문에서 따온 모티브로 꾸몄다. 촘촘한 창문을 통해 위치메이킹에 필수적인 자연광의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블랑팡 최초 매뉴팩처의 안락함을 느낄 수 있다. 그 밖에 길고 긴 거울을 견뎌야 하는 스위스의 깊은 산골 농장에서 시작된, 아주 오래된 블랑팡의 역사를 서울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고스란히 재현했다.

블랑팡의 아이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부티크

블랑팡의 매장을 찾은 이들이 기대하는 것은 아이코닉한 빌레레(Villeret) 컬렉션부터 다이버 위치의 교과서가 된 피프티 패덤즈(Fifty Fathoms), 그리고 타 브랜드에서 찾아보기 힘든 기계식 위치의 매력을 실감하게 해주는 여성 컬렉션까지 한눈에 만나보는 것일 듯. 이 새로운 부티크는 블랑팡을 대표하는 유명 컬렉션은 물론 고즈넉한 부티크 안에서 투르비용, 미닛 리피터, 퍼페추얼 캘린더 등의 그랜드 컴플리케이션을 비롯, 블랑팡의 다양한 컬렉션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다. 부티크를 채운 쇼케이스와 상담 테이블, 소파 등의 가구 또한 르 브라쉬에 위치한 블랑팡의 아틀리에와 동일한 콘셉트로 제작해 스위스의 전통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다.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월드타워점의 블랑팡 부티크에서는 다양한 제품뿐 아니라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기품 있고 차별화된 서비스도 준비했다. 실제로 매년 봄에 개최되는 세계 최대 시계 박람회인 바젤월드에서도 블랑팡의 부스는 기품 있고 세심한 서비스로 전 세계 각국의 바이어와 프레스의 관심을 받는데, 새로운 부티크 역시 이러한 블랑팡의 브랜드 가치와 공간 구성 노하우를 고스란히 담았다. 국내의 타 브랜드 시계 부티크와는 차별화된 식음료 바(bar)가 매장 내에 설치되어 있어, 부티크를 방문하는 고객의 기호에 따라 커피, 또는 코냐크 위스키 등 웰컴 음료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 수준 역시 높기에 꼭 한번 경험해볼 만하다. 블랑팡은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부티크 오픈을 기념해, 그동안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신상품을 비롯한 다양한 컴플리케이션 제품과 그 외 리미티드 에디션 상품을 함께 선보인다. 통유리로 이루어진 매장의 전체 콘셉트에 맞게 파사드(facade) 또한 통유리로 장식해 석축호수를 포함한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주변 환경과 자연스레 어우러지는 스위스 르 브라쉬 공방과 맥을 같이한다. 약 76m²(약 23평)에 이르는 이 부티크는 국내 블랑팡 부티크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하며, 전 세계 블랑팡 부티크와 마찬가지로 실내 전체를 체리 우드로 만든 벽장으로 장식해 스위스 시계의 매력을 고스란히 느끼고 싶은 이들이라면 반드시 찾아야 할 특별한 명소가 될 것이다. 문의 02-3213-2261 에디터 배미진



1 블랑팡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부티크 내부 모습.
2 블랑팡의 오랜 히스토리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부티크. 입체적인 스토어 외관이 인상적이다.
3 르 브라쉬 투르비용 카루셀 (Le Brassus Tourbillon Carrousel).
4 빌레레 문이즈 카루셀(Villeret Moonphase Carrousel), 88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Miu Miu
PRADA
PRADA
PRADA
OLIVER PEOPLES
OLIVER PEOPLES
CIRCA 1987

Ideal scene

시랑스러운 컬러와 디자인이 돋보이는 미우미우부터, 클래식과 스포티함 사이를 오가는 매력적인 프라다, 빈티지한 디자인에 트렌디한 감성을 더한 올리브 피플스까지. 세계적인 아이웨어 그룹 룩스타에서 선보이는 선글라스 컬렉션을 눈여겨보자. 이번 시즌 선글라스 트렌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테니. *photographed by park gum zoo*

© sponsored by Luxentica
© sponsored by BLANCPAIN

(맨 위부터 시계 방향) 로망틱한 핑크 컬러가 돋보이는 Miu Miu MU 04PVA 모델 36만7천원, 화려한 크리스탈 장식 이 모던인 유행 프레임의 Miu Miu 08RS 모델 40만 원. 데모 미우미우 by 룩스타가, 러버 소재로 제작해 특별한 움직임과 함께 흘러내리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뛰어난 내구성으로 아토피도 걱정 없는 PS 030SF 모델 23만4천원. 프라다 크레타 by 룩스타가, 독특한 멀티 컬러 케이스 아이 프레임에 프라다 헤리티지 로고를 정중한 톤으로 매치해 고르스라움을 부여한 OPR06TS 모델 35만 원. 프라다 by 룩스타가, 캐주얼 컬러의 오벌 프레임으로 단정하고 깔끔한 인상을 심어주는 OV5351D 모델 57만6천원. 브랜드에서 가장 아이코닉한 모델을 반디하게 재해석한 투 브라지 상크로아르, 프라다와 렌즈 컬러를 통일한 OV5348S 모델 43만 원. 모두 올리브 피플스 by 룩스타가. 허니 먼으로 톡 떨어지는 독특한 골드 프레임에 골드 미러 렌즈를 적용한 구조적인 디자인의 PR 54TS 모델 41만 원. 프라다 by 룩스타가. 문의 02-501-4436 에디터 이지연



완벽한 테일러링으로 현대적인 룩을 완성하다

남성들이 사회라는 전쟁터에 나갈 때 전투복이라 불리는 비즈니스 수트는 서열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아이템이지만, 사실 매일 입는 옷이라는 고정관념에 좋은 제품 보다는 적당한 가격대의 평범한 제품을 선택하기 쉽다. 하지만 성공한 남성은 모두 자신만의 수트 스타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일상복으로서의 수트가 화려할 필요는 없지만 몸에 꼭 맞는 소재 좋은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이는 비즈니스 매너임은 물론 자신감 있는 애틀리튜드를 상징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좋은 수트를 선택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브랜드가 있다. 바로 휴고 보스(HUGO BOSS). 1960년 휴고 보스의 맨즈 수트가 처음으로 출시된 이후 휴고 보스 그룹은 프리미엄 남성복, 여성복, 그리고 액세서리까지 선보이는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패션 브랜드로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럭셔리 패션 그룹으로 성장했다. 휴고 보스의 여성복은 물론 남성용 이브닝 턱시도 수트는 세계적인 영화제와 시상식에서 항상 할리우드 스타들과 함께할 정도로 명성이 높다. 1백여 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대중적 이면서도 하이엔드의 오라를 갖춘 이 브랜드는 옷을 아는 남자라면 꼭 한번 경험해보는 브랜드이자 프리미엄 라인까지 갖춘 매력적인 브랜드다.

휴고 보스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깔끔한 수트 핏에 대한 것이다. 사실 국내 남성복 전문가들은 수트를 처음 입기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부터 오랫동안 수트를 즐겨 입어 온 수트 마니아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브랜드가 휴고 보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국내 남성 셀러브리티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라는 점도 휴고 보스의 명성을 높이는 데 한 부분을 차지한다. 몸에 꼭 맞는 슬림 핏부터 자연스럽고 지적인 느낌을 주는 레귤러 핏은 물론 시상식에 자주 등장하는 클래식한 이브닝 수트까지, 남자들의 수트와 관련된 수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브랜드가 바로 휴고 보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체형의 결점을 고스란히 감추어주고 클래식하며 깔끔한 인상을 주도록 몸 전체를 리디자인하는 수트를 제안한다. 몸에 딱 맞도록 캔버스를 재단해 마치 수트가 유기적인 생명체인 듯 몸을 따라 흐르도록 한, 일명 맞춤 수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왼쪽 사진 속 아름다운 수트의 라인을 질 높은 패브릭으로 구현한 수트가 바로 휴고 보스에서 선보이는 풀 캔버스 수트다. 최고의 수트가 지닌 가치를 아는 남성들을 위한 특별한 맞춤 수트를 만나볼 수 있게 된 것이다.

the art of Tailoring

좋은 수트와 진정한 남성 패션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브랜드가 바로 휴고 보스(HUGO BOSS)다. 1924년 오스트리아 출신의 재단사 휴고 페르디난트 보스(Hugo Ferdinand Boss)가 독일 메칭겐(Metzingen)에서 유니폼을 만들며 탄생한 이 브랜드가 보다 완벽한 핏과 옷을 아는 남성들을 위해 풀 캔버스 수트를 소개한다.



휴고 보스의 풀 캔버스 수트(Full Canvas Suit)

전혀 불편함 없이 움직이는 암홀, 손등에서 정확하게 떨어지는 소매길, 깔끔하게 마무리된 버튼홀. 당연한 듯하지만 몸에 착 감기는 수트를 만드는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다양한 브랜드를 경험해보는 까다로운 남자라면 더욱 공감할 이야기다. 사실 선택의 폭이 넓은 남성 수트 원단의 종류부터 다양한 바느질 방법 중 하나를 고르고, 셀 수 없이 많은 패턴과 패브릭 조각이 하나로 이어져 만족스러운 작품으로 탄생시키는 것은 여성복과는 또 다른, 아주 섬세한 남자를 위한 과정이다. 겉보기에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한 남성복은 작은 차이에도 입었을 때 느낌과 분위, 핏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암홀과 어깨의 위치가 조금만 변경되어도 체형이 달라 보이는 효과가 있기에 남성복 제작이야말로 고전적인 의복 제작 방식인 맞춤 시스템이 가장 극대화된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렇듯 최고의 완성도를 원하는 남성성을 위해 남성복 브랜드마다 최고의 하이엔드 라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휴고 보스의 최고급 라인인 풀 캔버스 수트는 접근 방식 자체가 독특하다. 일단 일반 소비자라면 캔버스 수트라는 이야기 자체가 생소할 텐데, 수트의 전체적인 구도를 잡아주기 위해 수트 안쪽에 만드는 지지대를 캔버스라 부른다. 모든 요소에서 각을 맞추어주는 풀 캔버스를 사용할 수트는 고객의 보디라인에 완벽하게 맞도록 수작업으로 제작해 일반적인 캔버스 제작보다 2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패브릭을 몸에 맞추어 재단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몸의 선을 규정하는 캔버스, 즉 패턴부터 수트를 입는 단 한 명의 고객을 위해 맞춤 제작을 시작하는 것이다. 최고의 재단

사들이 최고의 고객을 위해 제작하는 라인인 만큼 브랜드만의 정밀한 디자인과 장인 정신이 반영된 최고급 수트 라인 이 바로 풀 캔버스 수트다. 독일 메칭겐에 위치한 휴고 보스 테크니컬 센터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풀 캔버스 수트는 전문적인 테일러링과 혁신적인 기술을 결합해 완벽한 핏과 독창적이며 모던한 보스만의 룩을 완성해준다. 이 페이지에 소개한 사진을 통해 수트를 제작할 때 섬세한 바느질은 물론 세심한 재단, 다양한 소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들 듯 오랜 노하우와 정성을 담은 테일러의 손끝에서 새로운 핏이 완성된다. 모던함을 담은 최신 기술과 오직 사람의 손길만이 닿아야만 하는 섬세한 핸드메이드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어야만 휴고 보스의 특별한 수트인 풀 캔버스 수트가 탄생하는 것이다.

핏이 아름다운 휴고 보스의 남성복

위의 사진 이미지를 하나씩 살펴보면 알 수 있겠지만 휴고 보스의 풀 캔버스 수트를 탄생시키려면 매우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야 한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관련된 첨단 기술을 도입해 완성도를 높이기도 하는데, 개발 단계에서 샘플을 다양한 기후에 노출시켜, 수트를 서로 다른 기후(아시아, 유럽, 북미 등)에서 착용해도 최고의 핏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도 휴고 보스만의 특별한 점이다. 소매 또한 맞춤 수트(Made to measure) 라인처럼 고객의 소매길이에 맞도록 기장과 버튼 부착을 커스텀 매이드해 완성도를 높인

다. 이렇게 정교하게 만든 풀 캔버스 수트는 몇 번 착용한 후 더욱더 편안해지는 것은 물론, 탁월한 유연성과 사프한 핏을 보여주기엔, 실물로 마주했을 때 여성의 웨딩드레스처럼 아름다운 실루엣에 저절로 감탄하게 된다. 물론 캔버스만 몸에 맞추어 제작했다고 최고급 수트인 것은 아니다. 휴고 보스는 전매특허인 최고급 이탈리아산 패브릭을 최고의 기술로 커팅하고 핸드메이드 디테일을 더해 브랜드의 DNA인 완벽한 테일러링을 적용한다. 활동성과 유연함을 고려해 손바느질로 암홀을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숄기, 바늘판, 그리고 폴드 하나하나 신중하게 제작하는 덕분에 우아하게 몸을 감싸는 옷깃과 부드러운 촉감은 고급 수트의 매력을 고스란히 전달한다. 전문가의 재단 기술과 첨단 과학기술을 결합해 완벽한 핏과 독특한 모던 보스 룩의 풀 캔버스 수트가 완성되는 것이다. 정확한 과학기술과 거장의 테일러링 기술이 조화를 이룬 풀 캔버스 수트는 입는 즉시 완벽함을 느끼게 하며, 어깨선을 타고 내려오는 재킷의 자연스러운 실루엣은 입는 이의 존재감을 부각해준다. 이처럼 보스의 모든 풀 캔버스 수트는 고객 개인의 몸에 알맞게 맞아떨어져 완벽한 맞춤을 실현한다. 풀 캔버스 수트는 레귤러와 슬림 핏 두 가지 스타일로 선보이는데, 다양한 원단과 컬러 중 선택할 수 있다. 사진 속 아이코닉 수트로 선보이는, 섬세하게 짜인 체크 패턴의 울을 사용한 미디엄 블루, 컬러감이 있는 스트라이프 울을 사용한 네이비, 그리고 섬세하게 짜인 울 소재는 미디엄 블루와 그레이 컬러 모두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한 느낌을 자아낸다. 문의 02-515-4088 **에디터 배미진**

Owens-esque art furniture

지난 12월 중순, 일시적 정신 질환을 앓았던 미국의 스타 뮤지션 카네이 웨스트가 공식 행사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곳은 LA 현대미술관(MoCA), 패션계 슈퍼 디자이너 릭 오웬스의 가구전 <Rick Owens: Furniture> 전시 장소였다. 19세기 말 아르누보풍에 영감을 받아 자신만의 절제된 스타일을 창조해낸, 예술적 자아의 극치를 담아낸 듯한 릭 오웬스의 가구 디자인. 2007년, 취미로 만들던 가구를 세상에 선보였다가 아트 퍼니처 세계에서 열렬한 지지를 받게 된 그를 서울 도산공원에서 만났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를 거쳐 간 아티스트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곡선미를 추구하는 장식 양식인 아르누보(art nouveau)의 영향을 받았다. 불세출의 예술가 에드바르 뭉크(1863~1944)의 대표작 '절규'나 미론나를 보더라도 긴장감 있게 너울대는 특유의 곡선에서 아르누보풍의 흔적이 느껴진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물론 뭉크는 누군가의 표현대로 장식적인 요소에서 진실한 부분만 남겨 자신만의 간소한 화풍을 발전시킨 인물이었지만 말이다. 새로운 예술이라는 단어의 뜻처럼 기존 예술을 거부하고 참신함을 추구한 아르누보는 유럽과 미국을 회오리처럼 휩쓸었음에도 다분히 형식적이고 탐미주의적인 성향으로 흐르는 바람에 단명하기는 했지만, 오늘날에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교유의 매력을 활용하는 이들은 존재한다. 패션 세계에서 독보적인 세계를 구축한 디자이너 릭 오웬스(Rick Owens)의 가구 디자인도 그 대열에 포함되어 있다. 순전히 '사적인 탐닉'에서 시작했다는 그의 가구 디자인 작업은 '아트 퍼니처(art furniture)'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은 작품이다. 하나하나도 그렇지만 그가 큐레이팅을 진두지휘한 공간에서 어우러지는 면모는 더욱더 그러하다. 그처럼 빼어난 예술성을 인정받아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현대미술관(MoCA)에서 그의 가구 전시회가 열리기도 했다. 그에 앞서 서울을 개인적으로 찾은 릭 오웬스를 만나 가구 디자인에 대한 대화를 들어봤다.



1 파리 7구에 있는 릭 오웬스의 사무실 겸 작업실인 필레 부르봉(Palais Bourbon)에 마련한 집전실. 2 강령전시도 우아한 카리스마를 뽐내는 특유의 스타일로 한국에도 많은 팬을 거느린 릭 오웬스. 3 균형이 있게 배치한 콘크리트 벤치가 눈에 띄는 뉴욕 소호의 릭 오웬스 매장. 그의 표정을 살펴보면 자신에게 걸여진 반응적인 에너지를 쏟고 엄청난 '발뺌'을 말면서 그들의 디자인 가구 컬렉션에 크게 기여한 릭 오웬스의 부인 마셀 레미아가 인터뷰에 디자인을 말했다. 미국 출신인 릭과 프랑스 출신인 마셀은 현재 파리를 주 무대로 활동한다. 4 석양된 나무를 기본으로 하고 북미산 사슴뿔로 장식한 의자. 초기 컬렉션이다. 5 2012년 스위스 저택단(Samedan) 소재의 켈사 플린타 뮤지엄에서 열린 전시 <Magic Mountain>를 통해 선보인 릭 오웬스의 아트 퍼니처 컬렉션.

10년 차 릭 오웬스표 가구 디자인, 현대미술관에 가다

릭 오웬스를 처음 만나게 된 동기가 사실은 가구였다. 2012년 서울에서 릭 오웬스의 가구 컬렉션 전시가 열렸는데, 그의 작품 세계에 흥미를 느껴 파리에 간 길에 중상된 7구에 자리한 그의 작업자 사무실을 찾은 적이 있다. 이번에는 그가 한국을 생전 처음으로 찾았는데, 신사동에 자리 잡은 릭 오웬스 매장에서 만난 그는 햇병아리 좋다면서 이내 근처에 있는 도산공원을 발견을 옮겼다. 도산 인형호의 묘소가 있는 아담한 공원이 꽤 마음에 드는 듯했다. "새로운 도시에 가면서는 절이나 교회, 또는 그곳의 문화적 배경을 접할 수 있는 장소를 일부러 들르는 편이에요. 현지 사람들의 핵심적인 가치(values)를 공유하는 곳니까요. 저는 종교가 없지만, 그런 가치를 음미하면서 세상 사람들과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며칠 되지 않은 짧은 방문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더 나은 나의 반쪽(my better half)이라고 부르는 아내 마셀 레미와 함께 고궁과 리움(Leeum) 같은 미술관, 수산 시장, 고구려 거리 등을 다니면서 서울의 문화적인 이모자모를 비추어 '살필'했다고 했다. 워낙 인터뷰를 사랑하는 그는 한국 고구려와 소품에도 흠뻑 빠져들고, 자신의 아트 퍼니처가 본인 디자인에서 대부분 LA의 문화 명소인 현대미술관에 전시된다는 명예로운 희소식에 대해서도 그답게 '쿨한' 반응을 보였다. 원래 화려하게 주목받는 것을 꺼리는 성향이긴 하지만, 가구 디자인은 아내인 마셀의 기여도가 워낙 큰 창조적 협업이기 때문에 자신의 공적으론만 치부할 수 없다고 그는 설명했다(실제로 그는 전시 오프닝에 공개적으로 나타내지 않았다). "제가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하고, 소재도 같이 고르지만 마셀은 목재, 대리석 등을 다루는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러 발품을 팔고 다니면서 매일같이 가구 디자인 작업에 반응적인 에너지를 쏟아냈어요." 그래서 최근 뉴욕의 매장은 아내 마셀에게 디자인을 부탁했다고.

강령하지만 부드러운, 우아한 카리스마

사실 이 커튼은 순전히 개인적인 용도이자 취미로 가구 디자인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LA에서 파리로 활동 무대 겸 거주지를 옮기면서 르 코르뷔지에, 브루탈리즘, 아르누보 등 릭 오웬스가 평생에 걸쳐 영감을 받아온 스타일의 '융합' 방식으로 집을 꾸미고 싶었는데, 여러 제약으로 고민하다가 결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스스로 재작하게 된 것. 그러다 2007년 우연히 소품을 단장하는 데 가구를 활용했고, 이를 계기로 리브콜이 쏟아지면서 세계 각지의 갤러리, 미술관에서 릭 오웬스 브랜드의 아트 퍼니처를 전시하고 소장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실용적인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감성과 미학을 반영한 '아트 오브 집'에 상응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전혀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일까. 그들의 가구 작업은 종종 'minimalist goth'라 표현되는 절제된 미학이 돋보이는, 구조적이면서도 우아하고 유려한 릭 오웬스의 패시 컬렉션과 비슷한 감성



을 품고 있지만 그 정수를 가장 진하고 자유롭게 담아내는 듯하다. 검은색 합판, 석화 석고(alabaster), 콘크리트, 대리석, 사슴뿔, 크리스탈, 다크 털, 스티로폼... 천연 소재와 저렴한 산업용 재료를 두루 포용하는 다양한 소재의 조합도 그렇지만, 유기적 곡선과 원시적 이면서도 섬세하게 정제된 분위기는 그가 흡수해온 각종 예술 시조를 자신만의 독창적인 감성으로 펼쳐냈다는 느낌을 준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무개념보다는 불륨을, 대칭보다는 아름다운 균형미를 추구하면서 유기적인 형태 등 아르누보적인 요소를 빼고는 금융적인 디자인을 보여준데, 그게 오히려도 굉장히 교육적이며 믿지 못할 정도로 자아한다. 아마도 경합을 바탕으로 한 진화에 방향성을 두고 있다는 그 자신의 인생 철학과 예술관이 고스란히 스며든 작업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가 말하는 진화란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더 정제시킬 수 있는지, 우리를 둘러싼 다양한 변화의 흐름에 맞서 우아하게 성장해나갈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0세 50대에 들어선 작가 요즘 초점을 두는 지형상이 바로 '중압감 속 슬기로운 대처'(grace under pressure)예요. 이제 생존을 위해 살아온 인생의 반은 자랐으니, 나머지 반은 스스로를 다듬는 정제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에디터 고영진

firming Ritual

고귀한 캐비아, 최고급을 추구하는 라프레리, 그리고 완벽한 아이 케어. 이 모든 요소를 충족하기 위해 라프레리의 아이 케어 에센스, '에센스 오브 스킨 캐비아 아이 콤플렉스'를 소개한다. 럭셔리한 뷰티 리추얼을 원하는 여성이라면 반드시 경험해야 할 아이템이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캐비아를 만난 최고급 아이 에센스
최고의 성분이 최고의 브랜드를 만났을 때, 초고급 화장품의 대명사로, 꼭 한번 사용해보고 싶은 브랜드 제품으로 이름을 날리던 라프레리. 순수함과 정교함, 오랜 명성을 지닌 코즈메틱 브랜드로 스위스 몽트뢰의 장엄한 알프스 산맥 아래에서 태어난, 브랜드의 본류를 스위스에 둔 보기 드문 브랜드다. 유서 깊은 레안 호수에서 절음의 비빔을 연구한 참치적인 과학자가 완성한 것이 바로 라프레리이고, 귀족과 왕족, 유명인들이 비탄스럽게 사용한 제품이 바로 캐비아 라인인 것. 그 중에서도 선명한 블루 컬러의 패키지는 진귀한 생선인 참치 상어의 알, 캐비아를 담아 더 각광받게 되었다. 모두가 캐비아 라인에 참관 캐비아를 들어 있는지 궁금해하는데, 실제로 독특하고 진귀한 캐비아 추출물이 담겨 있어 파피와 보호, 피로결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전달한다.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쉽게 접할 수 없는 캐비아를 화장품에 담았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센세이션얼인데, 이는 라프레리의 캐비아 라인에 탄생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릭스 크림과 라프리트 세럼 등 주요 캐비아 라인인 가격대는 꽤나 높은 편이지만, 보다 쉽게 라프레리의 캐비아 라인을 만나보고 싶다면 아이 케어 에센스의 '에센스 오브 스킨 캐비아 아이 콤플렉스'를 선택하면 된다. 초고급 라인의 제품을 접하기에 가격이 매력적인 것은 물론 효과도 즉각적이다. 아이 크림 단계 전에 사용하는 눈가 전용 에센스로, 한두 방울만으로도 눈 주위 피부가 촉촉해진다. 이 제품을 바른 후 '스킨 캐비아 리프트 아이 리프트 크림'을 바른다면 완벽한 캐비아 아이 케어가 완성되는 것.

민감한 눈가를 위한 전문가 라프레리
라프레리의 아이 케어 제품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는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브랜드의 높은 명성과 가치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사용 후 만족도가 높기에 39년간 아이 케어 전문 브랜드로서 18종이 넘는 아이 케어 제품을 개발해 큰 성공을 거둔 것. 특히 라프레리 아이 케어 제품에 대한 국내 여성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 아이 케어 라인만 모아 특별히 시리즈를 구성하고, 스토리텔링을 소개할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다. 그중 지금 소개하는 캐비아를 담은 아이 케어 에센스, '에센스 오브 스킨 캐비아 아이 콤플렉스'는 눈가 피부가 민감하고 여린 만큼 효과적인 제품을 사용하고 싶은 여성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제품이다. 활짝 웃거나 눈을 찌푸리는 과정에서 표정 주름이 생기고, 단지 아이시에도 바르는 것이므로 눈가 주름과 건조함이 유발되기에 아이 케어는 평생을 함께해야 할 중요한 뷰티 루틴 중 하나이다. 어떻게 나민민한 눈가 피부를 위해 탄생했기에 심각한 질감이 가장 매력적이다. 눈가 중 가장 예민한 부위에 이 에센스를 한두 방울 바른 후, 위에 크림을 살짝 덧바르는 것이므로 아이 케어를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 제형이 실효한 마이크로 젤에 고품질 캐비아 추출물과 라프레리의 진가를 담은 켈루라 콤플렉스 성분이 담겨 있어 부기를 최소화하고 눈 주위에 탄력을 주어, 피부 톤을 더욱 환하게 만든다. 최고의 아이 케어, 프리미엄 코즈메틱의 대명사인 라프레리 캐비아 라인을 만나보고 싶은 여성에게 에센스 오브 스킨 캐비아 콤플렉스는 좋은 해답이 되어줄 것이다. 15ml 20만6천원, 문의 080-511-6626 에디터 배미진

SPECIAL EVENT COUPON

<스타일 조선포>와 라프레리가 함께하는 특별한 쿠폰 이벤트

본 쿠폰을 지참하고 라프레리 매장을 방문해 고객 카드를 작성하는 <스타일 조선포> 독자께 '에센스 오브 스킨 캐비아 아이 콤플렉스(5ml)'와 '스킨 캐비아 리프트 크림(3ml)'을 드립니다.

◆ 중점품 에센스 오브 스킨 캐비아 아이 케어 콤플렉스(5ml), 스킨 캐비아 리프트 크림(3ml)
◆ 기간 2017년 1월 4일(수)~15일(일) ◆ 문의 080-511-6626 ◆ 중점 매장 전국 백화점 라프레리 매장

* 중점품은 한정 수량으로 조기 소진될 수 있으며, 1인 1회 선착순으로 중점됩니다.



본 이미지는 정품 이미지이며, 제조사는 중점품과 패키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왼쪽부터) GG 버클 장식이 돋보이는 블루 벨벳 마린트 백, 26X17cm, 2백15만원 **구찌**, 향황색의 젤스톤으로 포인트를 준 토트백, 27X20, 5cm, 3백20만원대 **미우미우**, 딥 그린 컬러 스트랩이 돋보이는 플랫폼 샌들 1백만원대 **프라다**, 레드 베일을 부착한 플랫폼 소재 햇 62만5천원 **구찌**, 새 모티브의 브로치 75만원 **나비피피 by 분더샵**, 입체적인 프레이밍의 신클라스 40만원대 **몰체간키바나 by 루스타카**, 브라스 소재의 중커 1백30만원대 **툴 포드**, 컬러 스톤 장식이 컷팅 기적 마징 **샤넬**, 왕실 컷팅과도 같은 고풍스러운 페터의 자카드 소재 리키 백, 31X26cm, 4백95만원대 **발로르엔 컬렉션**, 브론즈 컬러의 굵이 독특한 앵글루부츠 85만원 **드리스 난 드 by 분더샵**.



스타일링: 유영정, 헤어: 스타일비 이서영, make-up: 김수빈

Highly decorated

벨벳과 자카드 등 독특한 소재, 빈티지한 컬러와 장식이 옛 왕실에서 불법한 호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맨 위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꽃을 형상화한 크리스털 장식과 로맨틱한 핑크 컬러가 어우러진 미니 백, 18X11cm, 2백19만원 **몰체간키바나**, 다양한 컬러의 진주를 함께 엮은 볼드 네크리스 1백15만원 **미담 레브 by 10 코르스 코모**, 브랜드 시그니처인 버클 장식에 크리스탈을 더해 화려함을 부각한 스틸레토 54만원대 **로저 비비에**, 레이스 자수 디테일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프레이밍의 신클라스 40만원대 **몰체간키바나 by 루스타카**, 볼드한 진주 장식이 돋보이는 앵글 스트랩 힐 2백15만원대 **구찌**, 꽃무늬 자카드 소재 미니 백, 17X12cm, 2백20만원대 **미우미우**, 플라워 프린트 가죽 위에 보호한 스파이크 장식을 다룬 토트백, 25X18, 5cm, 2백987만원 **크리스찬 루부탱 by 분더샵**, 얼굴 표정을 연상시키는 이모티콘 모티브가 특징인 앵글 가죽 마징 **샤넬**, 부드러운 송아지 가죽 소재 장갑 1백만원대 **에르메스**, 사자 클라치 백을 미니 아처 사이즈로 축소시킨 백 청 50만원대 **프라다**, 크리스털 장식이 빛나는 벨벳 소재의 T-스트랩 슈즈 2백만원대 **에르메스**, 에더 **이저엔**.



구찌 1577-1921 미우미우 02-541-7443 프라다 02-3218-5331 분더샵 02-2056-1234 툴 포드 02-6905-3640 루스타카 코리아 02-501-4436
샤넬 02-543-8700 발로르엔 컬렉션 02-545-8200 로저 비비에 02-3438-6008 10 코르스 코모 02-3018-1016 몰체간키바나 02-3444-0077 에르메스 02-542-7722

black tea Remedies

주름 개선 가능성 인증을 받은, 피부를 즉각적으로 조여주는 탄력에 중심을 둔 새로운 제품이 탄생했다. 바로 프레쉬의 '블랙티 퍼밍 코르셋 크림'. 오랜 연구 끝에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곰부처를 화장품에 담았기에 더욱 매력적이다. 나만의 취향을 드러낼 수 있는, 특별한 케어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추천하는 2017년을 위한 프레쉬의 새로운 안티에이징 크림을 소개한다.

피부 탄력을 위해, 블랙티 퍼밍 코르셋 크림

뷰티 전문가, 패션 피플, SNS 인플루언서들이 사랑해 마지않는 화장품 브랜드가 있다. 바로 자신만의 고유한 매력과 꾸준한 효과로 인기를 얻은 코즈메틱 브랜드 프레쉬(Fresh). 부담스러운 수식으로 가득 찬 화장품 브랜드와는 차별화된, 좋은 성분을 담은 화장품의 확실한 효과와 특별한 브랜드의 감각을 모두 원하는 뷰티 리더들이 먼저 알아본 브랜드다. 10여 년 전 국내에 첫선을 보였을 때는 강남을 대표하는 화장품 브랜드, 유행생들이 사랑하는 뷰티 브랜드로 이름을 알렸지만, 지금은 오래 사용할수록 팬이 되는, 제 품격으로 인정받는 독보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이렇듯 꾸준히 국내 뷰티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는 프레쉬에서 새로운 안티에이징 크림을 선보인다. 바로 블랙티 컬렉션의 핵심 제품인 안티에이징 크림, '블랙티 퍼밍 코르셋 크림(Black Tea Firming Corset Cream)'이다. 이 제품을 설명하기에 앞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블랙티 컬렉션 자체가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 동양적이면서도 클래식한, 인상적인 원료를 화장품에 담았기에 프레쉬의 제품력을 익히 아는 뷰티 마니아들에게는 꼭 사용해야 할 컬렉션이 되었다. 그리고 2017년 1월, 블랙티 컬렉션의 라인업 중 핵심적인 요소인 블랙티 퍼밍 코르셋 크림을 더해 컬렉션의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제품의 핵심 메시지가 '퍼밍(firming)'인 만큼 건강한 피부 탄력을 위한 안티에이징 라인으로 이해하면 쉽다. 자체 연구소를 갖추고 브랜드의 독보적인 매력과 효과를 담은 프레쉬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블랙티 퍼밍 코르셋 크림에 담긴 블랙티 콤플렉스(Black Tea Complex)에 차나무와 곰부처에서 추출한 블랙티 성분을 중심으로 블랙베리 잎과 리치 씨 추출물을 함께 담았다. 지난해 방한한 바 있는, 에너지 넘치는 프레쉬 공동 창립자 레브 클레이즈먼은 "저는 늘 뷰티와 차(tea)의 교차점을 그려왔어요. 우리는 모두 차를 마시면 어떤 점이 좋은지 잘 알고 있지요. 하지만 그 외 차의 영역과 이면의 과학을 이해하면 차가 스킨케어에도 아주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블랙티 콤플렉스와 고지 열매 추출물, 그리고 퍼밍 펩타이드를 조합해 만든 이 가벼운 질감의 크림은 피부를 꼭 조여줍니다. 그 결과, 얼굴은 물론 목 피부까지 리프팅되며, 한결 매끄럽게 정돈되어 보이고 탱탱하게 어려 보이는 피부로 바뀌어줍니다"라고 이야기한다.

● sponsored by fresh



1 즉각적인 탄력 개선 효과가 뛰어난 블랙티 퍼밍 코르셋 크림, 마치 차를 우려낸, 곰부처의 유용 성분을 추출하고 안티에이징 효과가 뛰어난 고지 열매 추출물을 더해 최상의 안티에이징 효과를 낸다. 2 집중 케어 효과가 블랙티 에이지-딜레이 퍼밍 세럼, 3 블랙티 3-스텝의 핵심 요소인 블랙티 퍼밍 코르셋 크림, 4 프레쉬의 스페셜 케어 라인 블랙티 퍼밍 오버나이트 마스크.

세럼과 크림, 마스크로 이어지는 블랙티 퍼밍 3-스텝이 신제품 크림은 퍼밍(firming), 즉각적으로 피부 탄력을 높이는 데 놀라운 효과를 지니고 있는데, 프레쉬 리서치 랩에서는 '리틀 레드 다이아몬드'라고도 불리는 고지 열매 추출물의 특별한 퍼밍 효과에 주목해 이를 극대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기존의 곰부처 성분을 기반으로 고지 열매 추출물의 효과를 더해 얼굴과 목의 피부를 보다 탄탄하게 강화하고 탄력을 개선해 매끄럽게 정돈된 피부를 선사하는 것이다. 이 크림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고 싶다면 블랙티 컬렉션의 핵심 제품인 마스크와 세럼, 크림 등 세 가지 제품으로 함께 케어해 즉각적으로 피부 탄력을 개선할 수 있다. 일명 피부 퍼밍 작용을 일으키는 3중 세틴인 세틴데, '블랙티 에이지-딜레이 퍼밍 세럼', '블랙티 퍼밍 오버나이트 마스크'와 크림을 더하면 프레쉬의 '블랙티 퍼밍 3스텝이 완성되는 것. 이 3-스텝의 핵심은 안티에이징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이자 관리하기 어려운 목 라인까지 철저하게 케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세럼을 얼굴 전체에 가볍게 발라준 후, 블랙티 퍼밍 코르셋 크림을 목에 원두콩 크기로 발라 쇠골부터 턱까지

지 위로 쓸어 올리는 동작을 세 번 반복해 마사지하면 된다. 그 후 얼굴에 제품을 바르고 아래에서 위로, 턱에서 이마 쪽으로 마사지해주면 손끝을 따라 매끄럽게 정돈된 피부를 경험할 수 있다. 여기에 밤사이 씻어내지 않아도 되는 블랙티 오버나이트 마스크를 가볍게 발라주면 드라마틱하게 달라진 피부를 만나볼 수 있을 것. 안티에이징 효과가 확실한 제품을 찾고 있는 여성, 보다 새로운 감각으로 피부 전반을 케어하는 새로운 뷰티 라인업을 원하는 여성에게 프레쉬, 그리고 블랙티 컬렉션은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블랙티 에이지-딜레이 퍼밍 세럼 50ml 15만5천원대, 블랙티 퍼밍 코르셋 크림 50ml 16만5천원대, 블랙티 퍼밍 오버나이트 마스크 100ml 13만8천원대.

문의 080-822-9500 에더 배미진



SPECIAL EVENT COUPON



<스타일 조션일보>와 프레쉬가 함께하는 스페셜 이벤트

본 쿠폰을 소지하고 프레쉬 매장을 방문하는 <스타일 조션일보> 독자에게 블랙티 퍼밍 3-스텝(블랙티 에이지-딜레이 퍼밍 세럼 7ml + New 블랙티 퍼밍 코르셋 크림 7ml + 블랙티 퍼밍 오버나이트 마스크 4ml) 체험 키트를 증정합니다.

◆ 기간 2017년 1월 4일(수)~15일(일) ◆ 충전점: 서울로이백화점 WEST(02-547-4115), 신세계백화점 본점(02-310-5075), 강남점(02-3479-6202), 대구점(053-661-1873), 부산 센텀시티점(051-745-1249), 현대백화점 안양점 본점(02-3438-6026), 무역센터점(02-3467-8414), 목동점(02-2163-3224), 롯데백화점 본점(02-726-4038), 잠실점(02-2143-1930), 부산점(051-810-4108), 대구점(053-660-3064)
※ 1인 1회 사용, 1일 50개 한정수량 증정, 소진 시 추가·중복 증정 불가합니다.



Blue therapy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1백 세 이상 장수 인구가 많은 특별한 지역, 블루 존(Blue Zone). 장수 지역으로 유명한 블루 존인 코스타리카, 그리스, 이탈리아 주민들의 장수 비결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온 샤넬은 이 신비로운 지역이 지닌 비밀을 피부에 접목해 건강하고 아름답게 웰-에이징할 수 있는 특별한 안티에이징 세럼을 선보인다. '피부 장수'를 꿈꾸며 오랜 시간 젊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싶은 모든 여성을 위한 현명하고 능동적인 선택, '샤넬 블루 세럼'.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1 이탈리아 사르데냐의 따스한 햇살을 머금은 올리브나무. 2 그리스의 관목에서 채취한 렌티스크 검. 수지가 올라가면 눈을 방울 형태의 결정으로 변한다. 3 코스타리카에서는 '골드 맨'이라 불릴 정도로 귀한 식재료이자, 항산화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한 장수 식품이다. 특히 열매가 익기 전 그린빛을 띠 때 항산화 성분이 더욱 많이 생성되는데, 샤넬 연구소는 이때를 포착해 하나하나 손으로 직접 수확하고 콜드 프레스 공법을 통해 피부 노화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분자인 카페스톨과 카페올을 획득한 것. 이는 커피 열매 중 항산화 효과가 5배나 더 많이 함유된 농축물로,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탄력을 끌어올린다. 이와 함께 이탈리아의 식생활에서 필수적인 사르데냐 지역의 올리브도 없어서는 안 될 메인 원료다. 샤넬만의 독보적인 올레오-에코 추출법을 통해 필수지방산, 오메가 3·6·9이 풍부한 올리브 열매와 각종 항산화 성분을 함유한 올리브 잎의 효능을 모두 담아 외부 유해 환경과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 노화를 예방한다. 또 다른 핵심 성분인 그리스 렌티스크 검은 올리브농산올을 풍부하게 함유해 탁월한 재생 효과를 발휘한다. 고온에 민감한 올리브농산올의 특성을 반영해 초임계 이산화탄소 냉각 추출법을 선택, 성분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이 세 가지 활성 성분의 복합 작용을 통해 블루 존의 장수 비결인 네 가지 조건을 조절하는 작용이 발현되면서 결과적으로 피부 수명을 증진시키고 피부의 젊음과 본연의 아름다움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다.

피부 장수를 위한 끝없는 탐험, 블루 존

후성 유전학을 적용한 안티에이징 라인 '르 리프트'부터, 민감성 피부를 위해 단 10가지 안전 성분만 함유한 '다 슴리씨용 10', 시간대별 뷰티 루틴을 제안하는 '르 주르-라 누-르 위 켄드' 샤넬 등 늘 새롭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획기적인 럭셔리 코스메틱을 선보이며 뷰티 트렌드를 선도하는 샤넬 뷰티가 올해도 그간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콘셉트의 제품으로 센세이션을 예고한다. 바로 장수 인구가 많은 지역인 블루 존에서 영감을 받은 안티에이징 코스메틱, '블루 세럼'이 그것. 전 세계 대표적인 블루 존인 코스타리카, 그리스, 이탈리아 등 세 지역의 장수 비결을 분석해 이를 피부에 접목한 최초의 화장품이다. 이는 2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여성들의 주변 환경과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아름다움의 연관성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샤넬 연구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완성한 제품이다. 단순히 피부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 여성 스스로 능동적인 뷰티 케어를 통해 피부 본연의 아름다움을 오래 유지하고 보다 건강하게 웰-에이징할 수 있는 뷰티 리추얼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 그렇다면 샤넬이 주목한 블루 존에는 어떠한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을까? 샤넬이 꼽은 블루 존인 코스타리카, 그리스, 이탈리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한 결과 총 네 가지 공통적인 비결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과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실천하고, 탁월한 스트레스 관리 능력과 함께 사회 구성원 간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 샤넬은 이에 영감을 받아 이런 공통점을 피부 세포에 고스란히 반영했으며, 그 결과 피부 세포 에너지, 피부 세포 신진 대사, 피부 세포 스트레스 적응력, 세포 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블루 세럼을 탄생시켰다.

블루 존의 생명력을 담은 특별한 세 가지 성분

샤넬은 이런 블루 존의 특징적 네 가지를 피부에 적용하기 위해 블루 존의 장수 비법뿐만 아니라, 실제 그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책임지는 세 가지 식물 성분에 주목했다. 코스타리카 니코야 반도의 해발 700m 고원지대에서 추출한 그린 커피와 이탈리아의 식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사르데냐 지역의 올리브, 그리스의 관목에서 추출한 렌티스크 검(나무에서 나오는 진)이 그 주인공. 여기에 샤넬 연구소만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접목해 순수하고 강력한 활성 성분을 블루 세럼 한 병에 고스란히 담았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핵심 성분

인 코스타리카의 그린 커피는 '골드 맨'이라 불릴 정도로 귀한 식재료이자, 항산화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한 장수 식품이다. 특히 열매가 익기 전 그린빛을 띠 때 항산화 성분이 더욱 많이 생성되는데, 샤넬 연구소는 이때를 포착해 하나하나 손으로 직접 수확하고 콜드 프레스 공법을 통해 피부 노화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분자인 카페스톨과 카페올을 획득한 것. 이는 커피 열매 중 항산화 효과가 5배나 더 많이 함유된 농축물로,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탄력을 끌어올린다. 이와 함께 이탈리아의 식생활에서 필수적인 사르데냐 지역의 올리브도 없어서는 안 될 메인 원료다. 샤넬만의 독보적인 올레오-에코 추출법을 통해 필수지방산, 오메가 3·6·9이 풍부한 올리브 열매와 각종 항산화 성분을 함유한 올리브 잎의 효능을 모두 담아 외부 유해 환경과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 노화를 예방한다. 또 다른 핵심 성분인 그리스 렌티스크 검은 올리브농산올을 풍부하게 함유해 탁월한 재생 효과를 발휘한다. 고온에 민감한 올리브농산올의 특성을 반영해 초임계 이산화탄소 냉각 추출법을 선택, 성분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이 세 가지 활성 성분의 복합 작용을 통해 블루 존의 장수 비결인 네 가지 조건을 조절하는 작용이 발현되면서 결과적으로 피부 수명을 증진시키고 피부의 젊음과 본연의 아름다움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다.

피부의 젊음을 활성화하는 뷰티 리추얼

늘 쉽고 간편하면서 우아하고 세련된 뷰티 케어를 제안하는 샤넬 뷰티에서 선보이는 신제품답게 블루 세럼 역시 아주 간편하고 세럼 대신, 혹은 기능성 세럼을 사용하기 전에 발라도 좋은, 말 그대로 어떠한 스킨케어 리추얼이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간결한 제품 패키지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제형도 수분 세럼처럼 가벼운데, 수분감이 느껴질 정도로 촉촉하게 스며들고, 마치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것처럼 부드럽고 보송보송하게 마무리되는 점이 인상적이다. 기존의 뷰티 루틴에 이 제품 하나를 추가해서 발라보니 바르기 전과 비교했을 때 건조함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각질과 잔주름이 유연해져 피부결이 한결 고르게 정돈되었다. 실제 샤넬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1백33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임상 실험을 한 결과, 피부 탄력이 21% 향상되고, 주름이 35% 완화되었으며 피부결이 38% 고르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니, 달라진 피부를 원한다면 피부 장수를 위한 샤넬 블루 세럼이 답이다. 30ml 14만8천원. 문의 080-332-2700 에디터 권유진

© sponsored by CHANEL

strength & Stretch

아무리 매일같이 트레이드 밀 위에서 몇 시간씩 뛰다 해도, 타고난 체형과 자세가 틀어졌다면 예쁜 몸을 만들기는 힘들다. 체형만 제대로 교정해도 재킷 핏이 달라진다는 사실! 2017년 달라진 보디라인과 건강을 위해 <스타일 조선일보> 에디터가 직접 방문한 필라테스 센터 세 곳의 리얼 체험기.



1세대 필라테스 지도자의 전문적인 트레이닝 위드 필라테스

위드 필라테스는 필라테스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지도자라면 대부분 알 만큼 필라테스업계에서 유명한 곳이다. 한국에 단 2명뿐인 국제 필라테스 자격증 교육 및 글로벌 단체인 스탠필라테스®의 강사이자, 대한민국 1세대 필라테스 지도자인 ऐ리얼 대표가 이끄는 곳인 만큼, 오픈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녀의 수업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필라테스 마니아와 많은 지도자가 이곳을 찾는다. 이런 이력 외에도 이곳이 특별한 것은 모든 커리큘럼이 기존 필라테스와는 차원이 다른 스탠필라테스®라는 운동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신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생체 역학을 고려한 운동법으로, 기존 필라테스에 비해 체계적이며, 동작은 물론 호흡법까지 일반 필라테스와는 다른 것이 특징이다. 위드 필라테스에서 레슨을 받고 느낀 점은, 역시 소문대로 체계적으로 지도한다는 것이다. 비록 ऐ리얼 대표가 필라테스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1~2회의 수업만으로도 몸 상태가 달라진 것을 느꼈기 때문. 그동안 다양한 운동을 섭렵하며 많은 강사들을 접해왔지만, 개개인의 몸 상태와 운동 목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사실 드물었다. 이런 체험이라 다이어트보다는 체형을 바로잡아 탄력 있게 만드는 여성스러운 라인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는데, ऐ리얼 대표는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동작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디렉션했다. 동작이 잘못되면 안되는 것,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몸에 무리가 가지는 없는지를 예리하게 파악해 동작을 수정하고 지시하기 때문에 운동 후 평소 사용하지 않던 근육 구석구석까지 자극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그녀와 함께 운동하면서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보다 자세가 바로잡히고 보디라인이 탄력을 되찾았다는 것이다. 코어 운동에 집중하면서 종종 찾아오는 허리 통증도 사라졌음은 물론이다. 1년 전 헬스 트레이닝을 할 때는 무작정 커지는 예쁜지 않은 근육으로 고민이었는데, 나 몸 상태와 고민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강사와 함께 필라테스 동작을 꾸준히 익히니 라인이 여성스럽고 매끄러워져 더욱 만족스럽다. 마스터 트레이너와 함께하는 1:1 수업 비용은 다소 비싼 편이지만, 이에 대해 ऐ리얼 대표는 단기간에 효과를 보고 싶거나 재활 치료를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면 이곳에서 3~5회 정도만 트레이닝받아도 개선 효과가 뛰어나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늘 시간에 쫓기는 ऐ리얼은 한 달간의 체험이 끝난 후 현재까지 5개월째 이곳에서 30분간 1:1 레슨을 받고 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효과는 기대 이상이니,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잠시 접어두는 것이 좋을 듯. 마스터 트레이너 개인 레슨 1회 60분 16만 원, 문의 02-540-5698_by 에디터 권유진

메디컬 시술과 필라테스의 결합 린 엑서프리

체의 충격과 체형 관리로 이미 강남권에서는 정평이 나 있는 메디컬 센터 린 클리닉에서 운영하는 체형 교정 센터라니, 호기심과 기대감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 실제로 기본이 1대 이상인데, 유명 연예인과 정·재계 VIP 고객이 대부분인 만큼 럭셔리하고 프라이빗한 공간과 호텔급을 넘어선 서비스가 단연 돋보인다. 일반적으로 전문 트레이너가 육안이나 손으로 몸 상태를 진단하는 것과 달리, 병원답게 최첨단 체형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체형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문제점을 체크해준다 이보다 더 전문적일 수 없다. 먼저 개인 룸에서 준비된 운동복을 입고 운동복부터 운동화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다. 검사를 들어가면 대학병원의 건강검진 센터를 연상시키는 첨단 장비가 모습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체형 정렬 검사를 진행하고, 보행 자세까지 분석해 빠른 시간 안에 체형과 자세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 이는 차트에 기록되어 매주 운동 시마다 분석 자료로 사용되고, 꾸준히 관리를 받은 후에는 비모 & 애프터 비교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효과를 단순히 몸으로 느끼는 것을 넘어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뢰가 간다. 필라테스, 코어 운동, 슬링 운동, 보행 교정 등으로 이루어진 체형 교정 프로그램은 각각의 전문 트레이너와 함께 진행하는데, 그날그날의 컨디션, 몸의 구조에 따라 오로지 1:1 맞춤 처방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동작은 트레이너의 도움으로 몸을 정확히 쓸 수 있도록 움직이고, 운동 전후에 물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트레이너의 마사지 치료를 접목해 운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마치 스포츠 마사지를 받는 듯 온몸이 시원하고 개운해진다. 이와 함께 운동 효과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체의 충격과 시술을 병행하는 것 역시 이곳의 독보적인 관리 프로그램이다. 이를 병행하면 인대와 관절의 염증을 없애주고 근육이 유착되는 것을 막아 보다 빠르게 체형을 교정할 수 있다. 즉, 운동을 통해 4회 정도 반복해야 체형 교정 효과가 나타난다면, 충격파를 병행할 경우 1~2회만으로도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단계를 세심하고 프라이빗하게 진행되며, 시간에 쫓기지 않고 오로지 한 사람을 위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모든 스태프의 유연하고 상세한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마치 이곳의 중요한 VIP 혹은 여배우가 된 듯한 느낌이 든다. 더불어 나의 몸에 대해 공경했던 모든 것을 전문 트레이너와 의료진에게 상담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테이스트가 기다림이나 그동안 꾸준한 운동에도 큰 효과를 느끼지 못한 사람이라면, 필라테스 운동에 메디컬 시술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진정히 원한다면 시술로 선보이는 린 엑서프리 체형 교정 프로그램에 매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린 엑서프리 1회 60분 18만 원, 린 클리닉 체외 충격파 1회 36만 원대부터, 문의 02-3448-3003_by 에디터 권유진

필라테스와 파워 플레이트의 결합 버라이어티 니콜 스튜디오

안전이 지인이 짝자준 에디터의 옆모습은 활처럼 굽은 등에 아까는 말려 있고, 목은 또 얼마나 나와 있던지. 1년 3백65일 다이어터를 자처하는 에디터에게도 이번만큼은 실이 아닌, 이 뭉친 체형 때문에 당장 체형 교정 운동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본격적으로 체형 교정 운동 센터를 알아보던 중, SNS에 능한 에디터의 레이더링에 포착된 스튜디오가 있었으니, 바로 한 몸매 하는 패션 인물루인사들의 운동 성지라 해도 과언이 아닌 니콜 스튜디오였다. 첫 수업을 위해 니콜 스튜디오에 들어서던 순간, 마치 특급 호텔에 위치한 피트니스라 해도 믿을 만큼 모던하고 럭셔리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다. 운동 프로그램은 주로 코어와 근력 트레이닝에 중점을 두고 여러 운동을 접목해 시너지 효과를 얻어줌 유독한다. 니콜 스튜디오의 정훈희 대표는 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예쁜 옷을 입기 위해 운동한다는 에디터의 솔직한 속내에 이곳의 주 무기인 필라테스와 파워 플레이트를 병행하는 운동을 권했다. 파워 플레이트는 가슴 트레이닝 기법으로 몸 전체에 초당 30~50회 미세한 진동을 주어 운동 시 근육의 수축 이완을 무려 3~5배 늘려 10분간의 운동으로 1시간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기구다. 시간 대비 다이어트 효과가 뛰어나 마른나 등 할리우드 스타들이 애용하는 운동 기구라는 점도 솔직했다. 파워 플레이트에 한들만 잡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닌, 필라테스 동작을 더해, 근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 실제로 운동해보면 결과, 이 기계의 단점이라면 짧은 30초가 마치 30분처럼 느끼게 올라간다는 것뿐, 흔들리는 지지대 위에서 우아한 동작으로 몸을 지탱하는 것을 속 나의 모습이 결코 보이지는 않았다. 특히 많은 여성들의 고민인 허벅지 뒤면에 쌓인 셀룰라이트를 효율적으로 감소시키고 플라센 생성을 촉진해, 피부가 탄탄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이 시시만큼은 이를 악물고 참았다. 실제로 한 달 동안 총 6회에 틈이 보이기 시작했다. 짧은 시간에 이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정훈희 대표는 운동을 열고 들어오는 에디터의 표정과 목소리 톤, 걸음걸이만 보기도 단번에 컨디션을 파악하고 맞춤 수업을 진행했다. 에너지가 넘치는 날은 온몸의 체중을 이용해 전신 근육을 움직이는 TRX 프로그램을 병행하기도 하고, 컨디션이 저조한 날에는 몸의 긴장을 푸는 스트레칭 위주로 수업을 이어나가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대표를 포함한 모든 강사들은 필라테스와 NASM(미국 스포츠 의학회) 이론을 바탕으로 재빨리 근근으로 한 필라테스 마스터에게 더욱 신뢰가 간다. 개인 레슨 1회 50분 11만 원, 문의 02-3443-7001_by 에디터 이지연

Magnolia Bakery

줄을 서지 않으면 사기 힘들다는 그곳, 매그놀리아 베이커리. 미국 드림바 (앤디 시터)의 주인공 미란다와 캐리가 벤처에 앉아서 먹던 그 캠퍼스가 현재는 명품점 판교점에 이어 무역센터점에도 통지를 들었다. 방부제를 일절 넣지 않고, 당일 생산, 당일 판매 원칙을 지키는 홈 베이커리 스타일을 추구한다.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생크림 케이크와 부드러운 바나나 푸딩 크림을 차곡차곡 채워 넣은 바나나 크림파이 8천원, 한국어로 '목란을 뜻하는 브랜드 이름처럼, 아름다운 꽃 모양 크림을 얹은 캠퍼크림 각 3천원~4천원, 폭신촉촉한 레드 벨벳 치즈 케이크와 초콜릿 치즈 케이크 각 8천원, 모두 매그놀리아 베이커리, 문의 031-5170-2233



바나나 크림파이를 담은 크리스탈 플레이트와 민트·옐로 크림 캠퍼크림을 올린 미니 사이즈 크리스탈 플레이트 모두 바카라, 꽃 장식 캠퍼크림을 올린 플레이트는 에디터 소장품.

Hugo & Victor

미술형 3스타 강태의 파스타와 피타에, 위고 루제의 디저트가 롯데백화점 본점에 올랐다. 프랑스 3대 디저트 작가인 위고 앤 빅토르가 팝업 스토어가 아닌 공식 매장을 오픈한 것은 서울 매장이 처음. 지중해 라임, 패션 프루트 등 생생한 과일과 소금, 발 카사노가 아우라져 반박하는 유색 보석을 연상시키는 티라미토와 글리 모양으로 만든 과일 파냥 시에가 이곳의 시그처 메뉴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시트를 넣어 구운 시타 티라미토 6천원, 프랑스산 밥 파스타로 만든 밤 카사노 티라미토 8천원, 이곳의 대표 메뉴인 지중해 크림과 생크림 조각으로 장식한 지중해 티라미토 7천원, 빈으로 저온 담근 초콜릿이 녹아 흐르는 몽상 오소콜라 4천원, 너트 파냥 시에 2천원, 너트 위고 앤 빅토르, 문의 02-726-4068



선명한 파란색이 시선을 끄는 디저트 플레이트 모두 에디터 소장품.

trendy Sweets

당신의 오감을 만족시킬 프리미엄 디저트숍 네 곳.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Mr. Holmes Bakehouse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핫 플레이스인 미스터 홀츠 베이커리하우스를 기점으로 그대로 재현했다. 자연 속의 과정을 거쳐 만드는 무표백 밀가루와 유기농 생강, 프랑스산 버터 등 최상의 재료로 고집하는 이곳의 시그처 메뉴는 후후룩 마시고 싶은 달콤한 크림을 넣은 도넛인 브리오쉬 도넛과 머핀처럼 생겼지만 식감은 크루아상과 가까운 크루아도. 이 2개의 디저트에 채우는 필링은 매일 두 가지 맛으로만 선보이며, 특별히 원하는 맛이 있다면 미리 찾아보고 가기를 추천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훈제 연어와 와사비, 김을 넣은 캄리피노아 롤을 재현한 캄리피노아 크루아상 5천원, 각각 흑임자 크림과 라즈베리 크림을 얹은 크루아상 6천원, 바닐라 커스터드 크림을 넣은 브리오쉬 도넛 3천원, 크러민 반죽을 캐러멜라이즈해서 틀에 넣고 구운 아멜리아 빵 4천원 모두 미스터 홀츠 베이커리하우스, 문의 02-547-2004



캠리피노아 크루아상을 담은, 아몬드 치즈 기법에서 영감을 받은 화려한 패턴의 정사각 비바도틀루 롤과 바는 블루 다이아 플레이트 모두 에디터 소장품.

Salon de Thé

1862년 파리에서 처음 문을 연, 마카롱의 명가라 불리는 리투레에서 선보이는 디저트 카페 리투레 샵롱 드 테. 신세계백화점 3층에 오픈한 지 이제 막 세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SNS상에서는 유명한 핫 플레이스다. 마치 18세기 프랑스로 되돌아간 듯 앙상적인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이곳은 시그처 메뉴인 마카롱을 비롯해 마들렌, 프렌치토스트 등 다양한 프랑스 패이스트리, 그리고 티 룸까지 갖췄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캐러멜, 초콜릿, 바닐라, 파스타치오, 로즈, 블루베리 마카롱 각 3천원, 레몬 소트 케이크 8천원, 마들렌 4천원, 파냥 시에 4천원 모두 리투레 샵롱 드 테, 문의 02-3479-7689 에디터 배미진, 이지연



editor's Pick

새해를 맞아 (스타일 조선일보) 에디터들의 화장대에 새롭게 놓인 뷰티 신제품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설화수 진설아이에센스** 설화수를 사용해본 여성들은 풍부한 텍스처와 효과에 감탄해하지 않는데, 새롭게 출시한 아이 에센스 역시 가디로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특별한 제품이다. 한국의 귀한 소나무, 적송에 크로명으로 존재하는 안티에이징 성분인 DAA를 찾아 33배 농축해 거품을 더욱 높였다. 손금 소재 골든 아이 케어 마사지가 함께 구성되어 사용하는 즐거움까지 더해졌다. 20ml 27만원. 문의 080-023-5454_by 에디터 배지진

어디션 디 아이세도우 앤 해쉬웨이, 스칼렛 요한슨 등 할리우드 스타들의 뷰티를 책임지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아이코(AYAKO)의 철학과 노하우가 담긴 코즈메틱 브랜드 어디션이 국내에 상륙했다. 무려 99가지 컬러 팔레트와 세 가지 타입의 텍스처 구성을 갖춘 브랜드의 베스트셀러로, 고급스러운 색감과 뛰어난 발색력이 단연 돋보인다. 1g 2만5천원. 문의 080-568-3111_by 어시스턴트 김수빈

시세이도 루즈 푸즈 립스틱 저항성에도 처음 바르는 순간 글로사하게 밀착된다. 입술을 촉촉하게 감싸는 오일과 왁스의 최적 밸런스를 실현했기 때문. 레드 총 167개로 해석한 제품으로, 각자의 피부 톤에 가장 잘 어울리는 완벽한 레드 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g 3만9천원. 문의 080-564-7700_by 에디터 이재민

배스 앤 블룸 타이 자스민 핸드크림 by 레흐 태국 스파 전문 브랜드답게 바르는 즉시 피자는 깊은 아로마 향이 상상을 안긴다. 부드러운 로션 텍스처로 빠르게 흡수되며, 끈적이지 않으면서도 촉감이 신통하다. 팩 근 용량에도 합리적인 가격 대도 마음에 든다. 100ml 2만2천원. 문의 02-797-0710_by 에디터 이재민

바이레도 아포칼립틱 겨울을 향으로 표현한다면 비로 이런 향이 아닐까. 타타르타 미론 장작이 타 들어갈 때 풍기는 깊고 스모키한 우디 계열의 향으로, 요즘같이 추운 날 부드러운 담요를 덮고 햇초코 향기를 일으켜 불아끼며 마음 한켠에 피워 두고 싶은, 매력적이고 따뜻한 향이다. 240g 9만6천원. 문의 02-3479-1688_by 에디터 권유진

SK-II R.N.A. 파워아이 크림 매서운 칼바람, 사무실 히터 등 겨울철 외부 환경으로 피부 속광각이 상해진 눈가에 탄탄한 힘을 부여해준 아이 크림이다. 농축 피타르™, 글리세린, 그리고 호모 단백질들 결합한 R.N.A. 아이 콤플렉스가 눈가 에 탄력을 더해줘 한결 또렷한 눈매로 바꾸어준다. 쏘뽀뽀 텍스처 또한 마음에 든다. 15g 13만원. 문의 080-023-3333_by 어시스턴트 김수빈

랑콤 스프링 로즈 팔레트 매서운 추위도 눈 녹듯 사라질 것만 같은 화사하고 사랑스러운 스프링 컬렉션 알티 팔레트가 벌써 출시되었다. 파스텔 핑크 페이퍼톤이나 꽃잎처럼 신통하고 여성스러운 컬러의 여섯 가지 아이세도우와 세 가지 립스틱으로 구성된 이 제품 하나로 다양한 자유로운 믹스 매치가 가능하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하는 제품이니, 팔기만을 조금이나마 빨리 느끼고 싶다면 서둘러 6만9천원. 문의 080-001-9500_by 에디터 권유진

롬 포드 뷰티 아이 디파이닝 펜슬 밀고 쓰는 롬 포드 뷰티의 메이크업 아이템다운 제품에 최선의 자극으로 꼼꼼하게 정리를 채우는 데 이만한 아이 펜슬이 없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크림이 녹아내리듯 부드럽게 피자는 부드러운 포클라와 진하고 깊은 컬러감. 라인이 살짝 번지는 것마저 지저분하지 않고 멋스러운 느낌이다. 1.36g 4만3천원. 문의 02-3440-2750_by 어시스턴트 김수빈

라 메르 워터 플럼핑 세럼 수분 보습, 미세 수분 입자를 담은 제품이라는 설명만으로도 기대가 되는 라 메르의 신제품 세럼. 해당 추출물을 흡수하면 미러를 브로스를 원료로 한가씩 즉각적인 보습 효과에서는 티의 추종을 불허한다. 주름 개선 인정을 받은 확실한 효과의 보습 세럼으로, 영장 크림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 함께 사용해도 좋다. 30ml 25만원. 문의 02-3440-2593_by 에디터 배지진

에디션 드 퍼플 프라페릭 말 카멜 플라워 헤어 미스트 모발에 가볍게 뿌리자마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무슨 향이냐고 물어볼 정도로 여성스럽고 매력적인 카멜 플라워의 향을 담은 헤어 미스트. 이렇게 뿌린 향이 재차 지인 은은하게 배어 있을 정도로 지속력이 강하고, 모발에 뽀뽀 볼레한 냄새를 잡아준다. 평소 향에 민감한 향수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100ml 21만5천원. 문의 02-3479-6258_by 에디터 권유진

디올 스킨 포어머 파페트 쿠션 다음에서 처음 출시한 드림 스킨 쿠션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고, 완벽한 모공 커버력을 갖춰 선풍적인 제품. 그 결과 피부결은 매끄럽게 정돈되고, 피부 결점은 완벽히 가려져 자전사우면서도 건강한 피부 톤을 연출할 수 있다. 한국 여성들의 다양한 피부 톤에 맞게 총 여섯 가지 세이도로 출시한다. 15g 7만5천원. 문의 02-3438-9631_by 에디터 이재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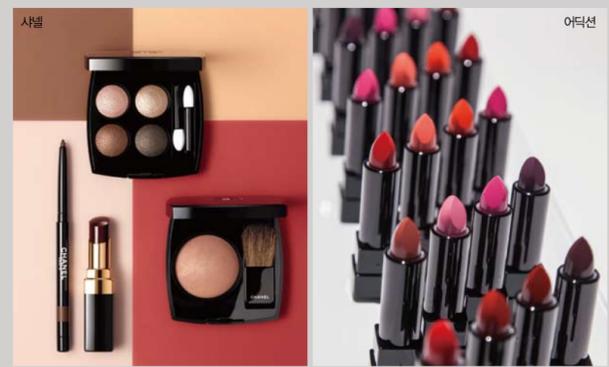
메카이 데일리 배워팅 향수화 매일 비타민과 함께 챙겨 먹으면 좋은 향산화 성분인 함유된 건강 기능 식품이다. 특히 코엔자임Q10, 비타민 C·E 등 항산화제로도 유명한 성분들이 함유돼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이 된다고. 해조류에서 추출한 식물성 스토브 젤 캡슐을 사용하고, 알틴적인 캡슐 크기보다 작은 330mg으로 목 넘김이 편하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2개씩 복용하면 된다. 330mgX60캡슐 6만원. 문의 02-3446-4058_by 에디터 이재민

클리닉스 엑스트라 퍼밍 마스크 피부 관리를 따로 하지 못하는 바쁜 기간에 애용하는 제품. 이 마스크 팩을 두들기게 되면 후 침몰된 방식이 최적의 피부 재생 활동을 돕는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식물 성분들이 어우러진 향이 힐링성 효과까지 선사한다. 다음 날 피부결이 한결 매끈해지고 마치 폭 눈 킷 보이는 맑은 인색으로 바뀌는다. 75ml 9만2천원. 문의 080-542-9052_by 에디터 이재민



SHOWROOM

BEAUTY



샤넬 코코 코드 샤넬은 브랜드의 상징적인 57지 컬러를 재해석해 적용한 2017 스프링 메이크업 컬렉션 '코코 코드'를 출시한다. 레드, 블랙, 골드, 화이트, 그리고 베이지를 우아하면서도 대담하게 표현한 컬러 팔레트가 돋보인다. 블러셔, 아이세도우, 립스틱, 펜슬 아이라이너 등 다양한 메이크업 제품으로 선보인다. 문의 080-332-2700

어디션 국내 론칭 이벤트 어디션은 호림아트센터 JNB 갤러리에서 진행한 그랜드 론칭 이벤트를 통해 성공적인 국내 데뷔를 마쳤다. 어디션은 각자의 개성을 살려 아름다움을 부각하는 메이크업 브랜드로, 스칼렛 요한



데코르테 AQMW 리플리션 마스크 데코르테는 리프팅 에센스를 농축한 프리미엄 마스크 'AQMW 리플리션 마스크'를 선보인다. 저하된 탄력, 잔주름 등 잔적인 림을 케어하기 위한 나이트 전용 마스크 팩으로, 고농축 앵콜과 주름 개선 성분 아데노신을 함유해 피부를 케어해 큰 도움을 준다. 데코르테 매장 과 온라인몰에서 판매한다. 문의 080-568-3111

프래쉬 블랙티 퍼밍 코르셋 크림 프래쉬는 피부 탄력 개선에 효과적인 스카이어 제품 '블랙티 퍼밍 코르셋 크림'을 새롭게 선보인다. 차나무와 곰팡이에서 추출한 블랙티 성분과 블랙티 잎, 리치 추출물 등 피부 상태를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성분을 함유한 블랙티 콤플렉스가 피부를 탄탄하게 조여주며 피부를 매끄럽게 가꾸어 준다. 문의 080-822-9500

프라코나스 홀리데이 컬렉션 프라코나스는 동화 속 풍경을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패키지가 사선을 사로잡는 '2016 홀리데이 컬렉션'을 출시한다. 이번 홀리데이 컬렉션은 영국 출신의 유명 페이퍼 아트 작가 로미리언과 협업해 탄생시킨 것으로,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블루 컬러, 골드 컬러, 그리고 섬세하게 완성한 일러스트가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블랙 캔들, 라즈베리, 그리고 로즈로 이루어진 싱크레온 플로럴 계열의 향조가 이어지다가 그 뒤를 이어 부드럽게 마무리해주는 우드와 앵버의 향이 인상적인 프래시그린스 모방 볼레 오데토일렛, 페이퍼 아트, 그리고 석고 방형타 구형한 모방 볼레 오데토일렛 기프트 세트, 모방 볼레 퍼플 송과 제시로 이루어진 모방 볼레 슈프림 세트, 은은한 꽃향기가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비엔도 미뉴티 카롬 캔들 등 총 37가지 구성으로 만날 수 있다. 문의 02-3443-1805

LIFESTYLE



정관장 뿌리삼 정관장은 홍삼 본연의 깊은 기질을 온전하게 느낄 수 있는 고급 홍삼 '뿌리삼'을 소개한다. 최고의 홍삼을 위한 정관장의 노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뿌리삼은 1백 년 이상의 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력이 20년 이상의 홍삼 장인의 손끝에서 완성된다. 색, 냄새 등 외부 상태와 내부 조직의 품질에 따라 천상, 지상, 그리고 양상 순서로 등급이 나뉜다. 연말연시를 맞아 정관장 뿌리삼으로 소중한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 문의 080-041-0303



올리버 피플스 바이레도 칼라베이션 올리버 피플스는 프레디그린스 브랜드 바이레도와의 파트너십 체결을 기념해 특별한 칼라베이션을 선보인다. 아서테이트와 18K 화이트 골드 컬러 렌즈의 조화가 유니크한 느낌을 지어내는 선글라스, 코트 심자를 사용한 옅은 황백색 황초로 구성된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하며, 올리버 피플스와 바이레도 부티크, 그리고 전 세계 셀렉트 숍에서 구매 가능하다. 문의 02-501-4436

델보 브리앙 루나 백 델보는 정유연을 기념하는 리미티드 에디션 브리앙 루나를 출시한다. 브리앙은 최고급 가죽, 뛰어난 기술력으로 완성한 디테일, 그리고 큼직한 버클, 유려하게 흐르는 곡선 등에서 느껴지는 독창적인 디자인 감각이 특징으로, 1958년 처음 출시한 이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의 대표 아이템이다. 정유연을 맞아 가장 손잡이와 버클 장식에 진한 레드 컬러를 가미한 레드 컬러를 가미한 아벤 이슬루루스 브 컬렉션은 오직 2백40개 한정량으로 출시해 더욱 특별하다. 문의 02-3449-5916



블랑팡 오션 카미트먼트 II 블랑팡은 새로운 피터 패럴트 바니스크 플라잉 크로노그래프 워치인 '블랑팡 오션 카미트먼트 II'를 선보인다. 브랜드 최초로 울 블루 세라믹 케이스로 선보인 타임피스로, 전 세계 단 2백50피스만 만날 수 있다. 또 판매될 때마다 해당 타임 활동에 1천원부가 기부돼 더욱 특별하다. 문의 02-6905-3367

까르띠에 까르띠에 매종 창당 크리스마스 데카레이션 까르띠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까르띠에 매종 창당의 특별한 크리스마스 데카레이션을 소개한다. 까르띠에를 상징하는 레드 리본, 왁스 실로 포장한 선물 상자, 크리스마스 트리 등 연말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는 장식으로 매종을 장식했다. 또 남성 워치 컬렉션인 드라이브 드 까르띠에의 얼골, 드라이브 맨으로 바 시계 그래픽의 2016에서 크로노그래프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큼직한 크라운, 워기 심도록 크게 표시한 아광 아라비아숫자 인덱스 등 몽블랑 마네르 메뉴팩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재현해낸 제품이며, 오직 1백 점 한정량으로 선보인다. 문의 1670-4810

반클리프 아펠 로즈 노엘 컬렉션 반클리프 아펠은 부드럽고 우아한 곡선이 시선을 사로잡는 '로즈 노엘 컬렉션'을 소개한다. 꽃이 만개하는

순간을 표현한 이 주얼리 컬렉션은 진한 블랙 컬러의 오픈스, 신통한 옐로우와 레드 컬러의 카블리언, 질은 블루 컬러의 라피스 라줄리 등 색이 강렬하고 선명한 원석을 활용해서 시시각각 다양한 꽃잎 6개를 완성, 우아하면서도 선동감 있는 꽃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이어링과 클립으로도 활용 가능한 펜던트로 구성된다. 문의 00798-852-16123

반클리프 아펠 반클리프 아펠 로즈 노엘 컬렉션 반클리프 아펠은 부드럽고 우아한 곡선이 시선을 사로잡는 '로즈 노엘 컬렉션'을 소개한다. 꽃이 만개하는

